Entertainment p/18

젊은 감각의 영화가 온다

metro
메트로 2015년 2월 24일 화요일 제3101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0

김민우 '괴물 신인투수' 찜!

정의선에 8억, 왜?

현대엠코 정의선 토지 관리 회사에 2009년부터 지급 p/5

엠코 "조경수 묘목 식재용으로 임대료 지급한 것"
법조계 "명확한 대가나 이득 없이 줬다면 배임죄"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이제는 리딩 뱅크" p/5

김정태 회장 연임 성공

'일곱빛깔' 레인보우 완전체 컴백 p/18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와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세요

대통령 중기 지원 지시…친박 행장 '나몰라라'

박 대통령 취임 후 첫 업무보고서 "중기 해외진출 확대"
김용환 이어 이덕훈 수출입은행장 대출 감소 잇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취임 후 첫 업무보고 때 "중소기업들이 좁은 내수시장에서 벗어나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후 나온 140개 국정과제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하지만 김용환 당시 한국수출입은행장은 보란 듯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되레 더 줄이고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더욱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3월 '친박(친박근혜) 낙하산'이란 비판 속에 취임한 현 이덕훈 행장 체제에서도 변화는 없었다. 친박이든 아니든 박 대통령을 물 먹이기는 마찬가지였다.

23일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기업 규모별 지원 현황'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은 2010년 전체의 37.7%(14조6000억원)에서 2011년 전체의 31.80%(13조6000억원)로 줄었다. 2011년 2월 김 전 행장이 취임한 이후의 일이다. 2012년에는 전체의 17.30%(8억6000억원)로 거의 반토막이 났다. 박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2013년에도 13.10%(약 7조원)로 감소세는 계속됐다.

반면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2010년 전체의 62.30%(24조1000억원)에서 2011년 전체의 68.20%(29조2000억원)로 증가한 뒤 2012년 전체의 82.67%(41조1000억원)로 껑충 뛰었다. 2013년 역시 전체의 86.89%(약 47조원)로 증가세는 이어졌다.

2014년 3월 친박인 이 행장 취임 이후에도 박 대통령의 지시와 정반대인 추세는 지속됐다. 2014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전체의 12.70%(7조3000억원)로 다시 쪼그라들었고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전체의 87.29%(50조5000억원)로 또 증가했다. 2014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격차는 거의 4배에 달했다.

특히 수출입은행은 성장동력을 확충한다는 명목으로 해외건설·플랜트, 선박, 자원개발 등 국가전략산업 지원을 확대하면서 대기업 지원에 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전체의 87.29%(30조6000억원)이던 대기업 지원은 2011년 92.72%(약 33조원), 2012년 97.73%(33조4000억원), 2013년 95.62%(36조7000억원), 2014년 96.40%(41조1000억원)로 증가했다. 자원개발의 경우는 대기업에 100% 지원하는 상황이 줄곧 이어지기까지 했다.

오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일방적인 대기업 퍼주기 행태에 대해 "전체기업의 0.1%에 해당하는 대기업을 위해 국가전략산업이라는 이름을 붙여 지원을 집중한 결과"라며 "지금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계획은 대기업에 그 이상 퍼주기 위한 대국민 눈속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김무성 "입각의원, 개혁 실패 땐 복귀말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3일 내각에 입각한 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 "장관이라는 자리는 한 정치인의 경력 관리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개혁을 성공하지 못하면 (당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마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완구 총리 임명과 4개 부처 개각으로 인해 국무위원 중 현역 의원 출신이 6명으로 늘어나게 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월국회가 얼마 남지않았는데 경제활성화법 등의 입법 처리가 시급하다"며 "정치권은 네 탓공방을 말고 2월국회서 남은 법안처리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5일 예정된 당·정·청 협의회와 관련해 "설 민심을 바탕으로 국민 아픈 곳, 가려운 곳을 잘 찾아내고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협의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정책을 시행할 때 국민에게 혼란을 주지 않고 특히 문제 생기기 전에 예방하고 조율·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에서 진전이 없는 데 대해 "매우 염려스럽고 안타깝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잘 봉해서 사회적 합의와 성과를 창출하는 개혁의 모범사례로 삼아야 나머지 국정과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이 생기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제한된 만큼 집중과 효율을 발휘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역대 정부가 그랬듯이 미봉책 개혁이나 책임을 뒤로 미루는 폭탄돌리기 식이 될 수 있다"며 "야당도 지난해 말 합의한 것처럼 4월 중에 단일합의안을 완성하고 5월 (국회) 본회의 처리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윤아기자 yoona18

'연말정산 3개월 분납' 국회 기재위 통과 정희수 위원장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내는 경우 3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박근혜정부 2년, 서민경제 파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3일 박근혜정부 출범 2주기를 앞두고 "박근혜정부 2년은 서민경제 파탄의 2년, 분열과 대립의 2년이었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당 정책위와 민주정책연구원이 '불통의 리더십 무너진 민생경제'를 주제로 국회에서 주최한 '박근혜 정부 2년 평가 토론회' 인사말에서 이같이 비판하면서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라는 시대정신은 버려졌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렇게 정치가 무능하고 무책임할 수가 없다"며 "특히 박 대통령은 정작하지도 않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수첩 인사를 고집하며 국정 혼란을 자초했고 국민과의 약속을 번번이 뒤집으면서 정치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켰다"는 비판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야당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게 박근혜 정부 실패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 역시 "배신의 2년"이라고 비판했고,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도 "박근혜 정부는 민생파탄 신뢰파탄 즉 '양파 정권'"이라고 했다.

이날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한편, 경제정당으로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우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은 국민이 경제에서만큼은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경제정당으로써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송병형기자

박 대통령 "3년 개혁해 30년 성장 이룰 것"

국회 경제입법 두고 "아주 퉁퉁 불어터진 국수" 비판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집권 3년차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해 "(남은) 3년 개혁해 우리가 30년 성장을 이루겠다는 구호의 같이 실제 그렇게 되도록 30년 성장의 도약발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년도 국정운영은 경제활성화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을 "골조를 세운 기간"이라고 평가했다. 남은 3년 동안에는 "그 위에 벽돌을 쌓고 건물을 올리겠다"는 설명이었다.

박 대통령은 다음 달 예정된 중동순방에 대해 "이번 중동순방을 계기로 2000년대 후반에 계속되고 있는 제2의 중동 붐을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 동력에 대해서는 "내각 중심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정책조정을 통해 힘 있는 경제 수동력을 확보해달라"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의 가동을 계기로 당정청이 국정의 공동책임자라는 인식을 갖고 한몸처럼 움직여 국민 삶의 변화를 끌어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족한 성과에 대해서는 국회를 비판했다. "여러 노력이 필요하지만 지난번 부동산 3법도 작년에 어렵게 통과됐는데 그것을 비유로 하자면 아주 퉁퉁 불어터진 국수"라며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법 마무리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당정간 한목소리로 대응해 나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대통령의 맞은편인 비서실장 자리는 김기춘 실장의 사의 표명으로 비어 있다. /연합뉴스

/송병형기자

논란 중인 화상경마장 이전 문제 등 마사회법 개정 번번이 '헛탕'

국회도 마사회 못 건드린다?

칠전팔기(七顚八起) 권투 이야기가 아니다. 도심 내 화상경마장 이전을 위해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분투 중인 국회의원들 이야기다.

19대국회는 출범 직후부터 시작해 임기의 4분의 3을 잡아가는 23일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쳐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통과조차 못하고 있다. 의원들은 기필코 관철시키겠다고 말하지만 전례에 비춰보면 가망은 없어 보인다. 18대국회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이어졌지만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가 '임기만료폐기' 처분을 당했다. 현행 개정 권한까지 가진 국회에게도 마사회는 버거운 상대다. 가히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마사회가 운영하는 화상경마장 문제는 2014년 6월 용산 화상경마장이 시범개장 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인근 성심여중·고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며 이전을 요구하고 나선 뒤부터다. 성심여중·고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교다. 2013년 12월 취임한 현명관 마사회장은 삼성그룹 출신으로 박 대통령 자문그룹의 멤버다. 등하교길이 두렵다는 박 대통령 후배들과 친박(친박근혜) 원로 간 대립 구도는 여론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실제 화상경마장 문제는 19대국회 출범 직후 국회의원들이 먼저 관심을 갖고 이전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했다. 전국에 산재한 30여개의 화상경마장 인근 주민들이 자역구 의원들에게 민원을 제기한 결과였다.

2012년 6월 가장 먼저 김동철 의원 등이 개정안을 냈다. 학교나 주택으로부터 200m 이내로 제한됐던 입지 규제를 2km로 늘리자는 게 골자였다. 개정안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심정됐지만 심임위 전문위원이 부정적인 검토보고서를 내면서 사실상 멈춰 섰다.

이 전문위원은 "기존의 화상경마장 30개소를 이전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마사회가 도심에 있는 기존 화상경마장을 외곽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해 9월 박민수 의원 등이 1km로 제한 거리를 축소해 다시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시 검토보고서에 막혔다. 이유는 이전과 같았다. 2013년 6월에는 김광진 의원 등이 화상경마장 설치·이전·변경에 주민동의 절차를 추가하자는 개정안을 냈지만 형평성 등을 이유로 검토단계에서 막혔다. 2013년 12월 용산이 지역구인 진영 의원 등이 마사회의 이전 계획이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전계획을 국회에 강제로 보고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또 막혔다. 2014년 2월에는 박범계 의원 등이 2km 거리제한과 이전계획 강제 보고를 함께 담아 개정안을 냈고, 같은 해 10월에는 이학영 의원 등이 3년 내 화상경마장 완전 폐지를 담은 개정안을 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폐해를 지적하는 검토보고서에 막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국회 입법과정에 정통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상임위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서를 금과옥조처럼 생각한다"며 "전문위원들이 관련 기관이나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면 법안은 그걸로 끝인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마사회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실제 현 회장 이전에도 소관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의 직전 장관과 소관 상임위원장 출신이 회장을 맡았을 정도였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뒤에 버티고 있다는 말이 나돈다. 심지어는 마사회가 청와대의 자금줄 역할을 한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공공연한 비밀로 통할 정도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빈소 찾은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오후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부인(故 박영옥 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 후 김 전 총리를 만나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 조사단, 성폭행 피해자 동료 여군들 '죄인' 취급"

군인권센터 폭로 … "사고부대 여군부사관들 전출계획도 있어"

최근 육군 1군사령관이 성폭력 피해자인 여군에게 책임을 전가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이번에는 육군본부 감찰실장과 피해 여군이 소속된 11사단 부사단장이 피해자의 동료 여군들을 비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사단 일모 여단장 성폭력 사건 조사를 위한 5부합동조사단이 사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육군본부 감찰실장 윤모 실장과 11사단 부사단장이 해당 부대 여군부사관들에게 비난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에 따르면 문제의 발언은 지난 2월 5부합동조사단이 11사단을 방문해 11사단 여군을 대상으로 연 간담회와 이튿날 해당 사건이 발생한 9여단 여군부사관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 나왔다.

이날 육군본부 감찰실장은 여군 80명을 상대로 강하게 질책했으며 다음날에는 부사관 8명에게 "너희들은 사태가 이렇게 될 때까지 왜 몰랐냐. 너희들끼리 얘기도 안 하고 지냈냐"라고 비난했다는 설명이다. 같은 날 감찰실장뿐 아니라 당시 배석한 부사단장도 "너희들 똑바로 하라고"라며 여군들을 죄인 취급했다고 임 소장은 전했다. 임 소장은 복수의 11사단 소속 남성군인 내부 제보를 토대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임 소장은 "5부합동조사단은 법무 인사 감찰 헌병 기무 분야를 맡은 11명으로 구성된 팀"이라며 "특히 육군본부 감찰실장은 이 사건의 팀장이라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또 5부합동조사단의 조사 이후 사건이 발생한 9여단 여군부사관들을 사단사령부나 신병교육대로 전출할 계획이 세워지는 중이라고 폭로했다. 조사 역시 부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임 소장에 따르면 군 당국은 피해자를 4차례 조사하면서 피해자 법률대리인 경험이 없는 법무관을 배정했고 조사 과정에서 법무관은 동석조차 하지 않았다.

임 소장은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나서 1군사령관·육군본부 감찰실장·11사단 부사단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윤아기자 yoona@

북 "남녘 모든 바다, 죽음터가 될 것"

북한은 다음달 초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KR) 독수리연습(FE)을 북침 핵전쟁 망동이라고 비난하고 "스스로 화를 부르는 노발 명위"라며 "통째로 수장해 버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반공화국 대결을 추구하는 자들은 비참한 종말을 고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침전쟁을 도발하면 남녘의 모든 바다가 죽음터가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또 지난달 미국 해군의 핵자력 추진 잠수함인 올림피아호가 남한에 입항한 것과 남한의 잠수함사령부 창설 등을 거론하며 연합훈련은 북침 핵전쟁 망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북한이 최근 실시한 해상목표 타격훈련을 언급하며 미국 증순양함 벌티모어호를 수장했던 6·25전쟁 당시보다 북한의 공격 능력이 "백배 천배로" 강해졌다고 선전했다.

그러면서 "바다에는 공동묘지가 따로 없다"며 남한이 "미국을 등에 업고 북침전쟁을 도발하면 남녘의 온 바다가 괴뢰군들의 죽음터로 화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노동신문은 한편으로는 남북대화와 관계개선을 내세워 "북침 합동군사연습이 계속되는 지금과 같이 험악한 상황에서는 북과 남이 열사 대화탁에 마주앉는다고 하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설득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북남간의 신뢰와 대화를 바란다면 모든 군사적 적대행동을 중지해야 한다"며 "사태의 엄중성을 바로 보고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했다.

한편 이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 제1비서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적들이 강요하는 그 어떤 전쟁 방식에도 다 대응할 수 있도록 만단의 전투동원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등 역사적인 연설을 했다고 보도했다.

/발윤다기자

유승민 "당정청이 세월호 인양 깊이 논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인양문제에 대해 "실저를 지유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자는 차원에 앞으로 당·정·청이 인양 문제에 대해 깊이 논의하고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가 연기되는 것과 관련해 "청문회가 야당의 거부로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국무총리 인준동의안 처리가 끝난 만큼 야당이 대법관 임명동의를 위한 청문회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빨리 청문회에 임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이 주장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여야가 함께 국민 앞에 밝힐 수 있다"며 24일 예정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의 주례회동에서 이런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지명된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도 다음달 11일까지 모두 마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윤아기자

춘절 연휴 기간동안 쓰레기 줍는 아이들

metro Hongkong

중국의 최대 명절 춘절(春節)이 빈부 차이를 보듬지는 못했다. 온 가족이 즐거운 연휴를 보내야 할 시간에 쓰레기 더미에서 춘절을 맞이하는 가난한 가족들이 많기 때문이다.

21일 메트로 홍콩은 중국 귀허양시 화시구의 한 대형 쓰레기 수거장에서 어린이 기 어른들을 따라 배회하는 사진들을 내거 보도했다. 아이들은 쓰레기를 줍는 도중 길에서 나온 지남들아 버린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부모와 함께 재활용 쓰레기를 줍고 있었다. 쓰레기 더미에 누운 채 음식을 먹으며 해맑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춘절 기간은 어느 때보다도 생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쓰레기로 생계를 잇는 이들은 더욱 바쁘고 힘들게 지내야 됐다.

한편 중국 당국은 지난해 중국의 지니계수가 0.469라고 밝혔다. 지니계수는 빈부 격차를 반영하는 수치로 0은 완전한 평등을, 1은 완전한 불평등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이 지수가 0.4 이상이면 소득 분배가 불평등한 것으로 인식된다.

/정두수 한경희기자

"IS 대응 아랍연합군 만들자"

이집트 대통령 창설 제안

IS 격퇴를 위한 아랍연합군 창설 조짐이 보이면서 IS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IS의 요르단 조종사 화형과 이집트 콥트교도 집단 살해가 아랍 국가들의 연대를 부추긴 계기가 된 것이다. 한편 IS는 리비아 도심을 점령하면서 곳빛 세력 확장을 벌이는 중이다.

22일(현지시간) 압델 파타 엘 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국영TV를 통한 녹화 연설에서 이슬람주의 무장세력의 위협에 대비해 '아랍연합군'을 창설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아랍지역이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무덤(grave)처럼 변했다"며 "그러나 아랍인들이 뭉친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아랍연합군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현재 이집트를 중심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가 이슬람 무장세력에 맞서 연합군 창설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시 대통령의 아랍연합군 창설 제안은 IS의 이집트인 콥트교도 21명 집단 참수에서 촉발됐다. 콥트교는 이집트의 기독교 종파로 이슬람 수니파 세력과 대척 관계다. 지난 15일 IS는 콥트교도 참수 동영상을 공개했고, 시시 대통령은 이튿날 새벽 리비아 내 IS 거점을 공습했다.

IS는 이집트 군대의 습격을 당했지만 보란듯이 리비아 주요 도심을 점령하며 세력을 과시했다. IS는 최근 리비아의 지중해 연안 도시 시르테를 점령했을 뿐 아니라 리비아 주재 알제리 대사관과 이란 대사관을 습격했다. 리비아는 무아마르 카다피 전 리비아 국가원수의 고향으로 근래들어 IS 주요 연사가 접부된 테러단체의 거점 지역으로 전락해버렸다.

◆ 오바마 모호한 IS 대응으로 비난 직면

한편 미국 정치인들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모호한 IS 대응을 문제삼고 나섰다. 중동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IS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2016년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7일 백악관에서 개최된 '폭력적 극단주의 대처를 위한 정상회의'에서 "어떤 종교도 폭력이나 테러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연설했다. 하지만 IS 문제를 에둘러 표현해 공화당으로부터 '본질을 비껴가는 연설'이란 비판을 받았다.

급기야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다른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전사하고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에게서 애국심을 못 느끼겠다. 그는 미국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IS 대처 방안에 대한 정치적 논란은 계속 커지고 있다.

/김문희기자 gmeagn@metroseoul.co.kr

교황, 로마 교외서 사순절 피정 시작 프란치스코 교황이 22일(현지시간)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 운집한 수천 명의 로마 시민과 관광객, 가톨릭 신자 등을 향해 삼종기도회 강론을 하고 있다. 교황은 이날부터 27일까지 로마 교외에 있는 아리차에 머물면서 교황청 수뇌부와 함께 사순절 피정에 들어간다며 "우리 모두 가진 많은 틀을 바로잡는 시간을 갖는다"고 말했다. /AP 연합뉴스

미국에만 사과하려는 아베 과거 반성하자는 日 왕세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월 말 또는 5월 초 방미 때 미국에게만 사과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반면 나루히토 일본 왕세자는 패전 70년을 맞은 일본이 전쟁의 비참함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23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일본총리 사상 처음으로 상·하원 합동연설을 추진하고 있다. 아베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일본의 액내 방위부담을 늘리는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재개정 등의 '큰 선물'을 미국에 안겼기 때문에 성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따라 아베 총리의 의회연설이 미국에만 사과하고 주변국들에 끼친 상처와 아픔은 언급하지 않는 '반쪽 사과'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7월8일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의회 연설에서처럼 한국과 중국 등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주변국에 대한 사과의 언급은 전혀 없을 가능성도 크다.

브래드 글로서만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퍼시픽 포럼 연구원은 "만일 아베 총리가 의회연설에서 미국과 호주에만 예의바르게 하고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상처를 더 깊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왕세자 "역사 올바르게 전해야"

나루히토 왕세자는 만 55세 생일(2월 23일)을 앞두고 지난 20일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쟁의 기억이 흐려지려고 하는 오늘날, 겸허하게 과거를 돌아보고 전쟁을 체험한 세대가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비참한 경험이나 일본이 밟아온 역사를 올바르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선 전쟁으로 일본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많은 이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많은 사람이 고통과 큰 슬픔을 겪은 것을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전쟁의 참혹함을 두 번 다시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과거의 역사를 깊이 인식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국명기자 kmlee@

아베 신조 일본 총리(좌) · 나루히토 일본 왕세자(우) /AFP 연합뉴스

"저유가·강달러 美에 재앙"

CNN머니 "투자·고용 감소 … 올 비즈니스 전망 어두워"

저유가와 달러강세가 미국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CNN머니는 애플 등 일부를 제외한 미국 대부분의 대기업 올해 비즈니스 전망이 밝지 않다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선 저유가는 미국 경제의 큰 축을 이루는 에너지 산업에 타격을 심하게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셰브론은 올해 지출은 지난해보다 13% 줄였으며 핼리버튼은 6400명 감원을 실행하고 있다.

MND 파트너스의 팀 앤더슨 대표는 "미국 소비자가 저유가로 절약한 돈을 아직 제대로 소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한 달러도 미국 기업들의 실적을 끌어내리고 있다.

기업 실적 전문 분석기관인 에스티메이츠의 크리스탄 쇼트 선임 부사장은 "달러 가치가 지난해 주요 통화들보다 약 15% 상승했다"며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 기업의 약 20%가 강한 달러로 말미암아 국외 실적이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미국 대기업의 수익 개선이 매출 증가를 웃도는 정도 주목해야 한다고 CNN머니는 지적했다.

S&P 500지수 기업의 지난해 4분기 수익은 연율로 4% 늘어난 반면 매출은 1%가량 증가하는데 그쳤다.

실제로 듀폰의 경우 지난해 4분기 보너스 동결과 급료 삭감으로 수익이 곱곡괄만하게 개선됐지만 매출은 한해 전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시스코도 바이백(자사주 매입)을 통해 수익 신장률이 매출 증가 폭을 웃돌았지만 역설적으로 비즈니스가 신통치 않았음을 드러낸 셈이다.

CNN머니는 "강한 달러와 저유가 충격으로 미국 대기업들의 전망이 생각보다 어둡다"며 "사람은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24~25일 미국 의회 증언에서 금리 인상 기조를 어느 강도로 시사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국명기자 kmlee@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숙제는?

하나·외환은행 통합·신성장동력 발굴·수익성 개선 등 과제 산적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며 2기 체제 출범을 알렸다. 김 회장의 임기는 2018년 3월까지 앞으로 3년.

하지만 제동 걸린 하나-외환은행 통합작업과 수익성 개선 등 풀어야할 난제도 만만치 않다.

23일 하나금융은 이날 오전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열고 김정태 현 회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단독 후보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나·외환은행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성장 저금리의 금융환경을 대비할 적임자로 김 회장을 꼽은 것이다.

회추위는 또 김 회장이 지난 3년간 그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왔고 지난해 인도네시아와 중국 등 해외현지법인 통합과 국내 카드 통합을 원활하게 마무리지어 시너지를 내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하나·외환은행 통합, 이번엔 마무리?

연임의 배경에는 하나·외환은행 통합 과제도 자리잡고 있다.

김 회장이 그동안 두 은행의 조기통합 작업을 진두 지휘해왔기 때문에 통합을 가장 잘 마무리지을 수 있다는 것.

실제 하나·외환은행의 조기통합 논의는 김 회장이 지난해 7월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통합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급물살을 탔다.

물론 두 은행의 조기합병까지의 길은 첩첩산중이다.

특히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하나금융은 오는 6월 말까지 하나·외환은행의 통합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와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됐다.

합병 기일 역시 당초 올해 2월에서 4월로 두차례 연기돼 표류하고 있는데다 예비인가 승인 신청도 철회한 상태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 노동조합과의 원만한 해결안 도출이 시급하다는 게 금융권의 전반적인 평가다.

아울러 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곧 취임하는 것도 합병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임종룡 신임 위원장의 의중과 생각에 따라 향후 합병 일정이나 노사 대화 진행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저성장·영업력 강화·수익성 개선 해결해야

저성장 구조 하에 수익성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축하는 것 또한 그에게 떨어진 과제다.

지난해 하나금융그룹의 순이익은 937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한금융의 순이익(2조811억원)과 KB금융 순이익(1조4000억원)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다.

하나금융의 실적 악화는 외환은행 실적 악화가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외환은행의 순이익은 3651억원에 그쳤다. 이는 전년대비 17.8% 떨어진 규모로 같은기간 하나은행의 순이익은 21.2% 증가한 8561억원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은 역시 "하나은행 직원 수의 30~70% 수준인 외환은행의 규모를 고려한다면 하나은행이 달성한 당기순이익의 70~80% 정도는 해줘야 한다"며 "이대로는 부산은행에 역전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지난해 기준 외환은행의 직원 수는 7440명으로 부산은행의 2배가 넘는다. 자산 규모 또한 141조로 3배 이상 크다.

그는 다만 실적 악화 요인에 대해선 "외환은행의 이전 대주주였던 론스타가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외환은행 노조 측은 "수익성 하락은 김정태 회장 경영실패의 결과"라며 "외환카드 분리로 6400억원 자본금이 이탈하는 등 2012년 피인수 이후 외환은행 실적이 급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증과 해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현재 하나금융은 공석이던 행장 자리에 김병호 하나은행장을 선임해 안정적인 지배구조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조기통합과 관련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나금융 측은 "금융산업은 여타 산업과 달리 선제적인 위기대응이 없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외환은행의 실적 등을 포함한 자료를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하나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금융권, 올해 사상 최대 규모 배당

국부유출 논란 vs 시장 활성화

금융권이 올해 사상 최대 수준의 배당을 할 전망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는 지주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3013억원의 배당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배당액인 1931억원에 비해 1000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주당 배당액은 780원에 달한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주당 650원에서 올해 주당 950원씩을 배당키로 했다. 배당성향(배당총액이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6.2%에서 21.6%로 크게 확대됐다.

지난 2년간 배당을 실시 하지 않았던 우리은행은 올해 공적자금 상환 등을 위해 1주당 최대 700~750원 수준의 배당액을 줄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주당 배당액이 100~250원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번 배당 규모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우리은행은 예보 등 주요 주주와 협의 후 늦어도 3월 초 열리는 이사회에서 최종 배당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업은행도 지난해 25.3%였던 배당성향을 올해 3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삼성카드는 작년 700원이던 배당을 1000원까지 올릴 방침이다.

은행들의 배당성향 확대 움직임은 순이익이 증가한데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등 정부의 배당 확대 독려와 내수진작 등을 위한 취지로 보인다.

앞서 한동우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지난달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배당 성향은 아시아 지역에서도 굉장히 낮은 편"이라며 "올해 배당성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또한 "정부가 소비활성화 측면에서 배당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줬다"며 "배당 친화적 기업에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KB금융은 배당 우수기업 지원과 우대를 골자로 하는 'KB금융 배당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배당 확대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신한(67.9%) 하나(69.1%) KB금융 등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들의 외국인 주주 지분율이 70%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외국계 은행인 SC은행과 씨티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100%며 DGB금융지주는 72.6%에 달한다.

이에 주주 이익의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당연하다는 주장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먹튀 논란과 같은 국부유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illegible]기자

KB국민카드, 굿데이 와이즈 올림카드 출시 KB국민카드는 'KB국민 굿데이 올림카드'와 'KB국민 와이즈 올림카드'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기존 카드에서 할인과 포인트 적립 혜택을 강화한 것으로 전월 이용실적 증가에 따라 할인 업종과 혜택의 규모가 커진다. /KB국민카드 제공

키움증권, 마루투자자문과 MOU 체결

키움증권은 국내 유일의 펀드 전문 투자자문사인 '마루투자자문'과 전략적 업무제휴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업무제휴로 양사는 금융상품자문업(IFA) 업무 및 영업활동 지원, 고객대상 설명회 및 세미나 등을 함께 개최하고 교육 및 컨텐츠 개발을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키움증권의 엄영춘 금융상품영업팀장은 "향후 도입될 금융상품자문업(IFA) 제도는 금융상품의 유통경로를 다양화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투자자문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를 충족시켜 금융상품 판매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키움증권은 앞으로도 마루투자자문과 같이 전문성과 역량을 보유한 외부 업체들과 제휴를 확대하여 수준 높은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IFA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루투자자문은 2012년 9월에 '제로인펀드투자자문'을 인수했다. 현재 연기금과 대형 시중은행 등 주요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약 4조원의 자산에 대해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llegible]기자

뉴스&뉴스

예탁원-삼성생명 MOU 체결

● 한국예탁결제원은 23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삼성생명빌딩 본사에서 퇴직연금사업자인 삼성생명과 퇴직연금 플랫폼 구축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 목적은 예탁결제원이 퇴직연금시장 효율화를 위해 올해 7월 오픈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퇴직연금 플랫폼 구축에 관해 양사간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시장 선도 사업자와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를 갖추게 돼 효율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전산 플랫폼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퇴직연금사업자들과의 협력체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illegible]기자

기업은행 '토스' 지원서비스

● IBK기업은행은 ㈜비바리퍼블리카의 모바일로 간편하게 송금과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인 '토스(TOSS)'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이번 협약에 따라 핀테크 스타트업 ㈜비바리퍼블리카에 '토스(TOSS)'가 연동될 수 있도록 고객계좌에서 실시간 출금이 가능한 펌뱅킹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어 기업은행은 KBS 창업오디션 프로그램 '황금의 펜타곤'의 우승기업 ㈜닷과 업무제휴를 맺고 핀테크 사업모델을 개발한다.

개발할 모델은 금융거래내역을 메시지로 전송받는 서비스인 'IBK ONE알림'에 ㈜닷의 '점자 스마트워치'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시각장애인도 입출금 거래내역과 신용카드 승인내역을 전송받을 수 있다. /[illegible]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illegible]
TEL 02)721-9800 FAX 02)730-1561
발행인·편집인 [illegible]
사장 겸 발행인 [illegible]
편집국장 [illegible]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01
[illegible]

농협생명, 첫 수장교체… 김용복號 순항할까

4년간 초회보험료 17% 이상 성장 '빅3' 위협
방카룰 유예 만료 대비·저축성 비중 줄여야

출범 4년 만에 생명보험업계 빅4로 자리잡은 NH농협생명이 처음으로 수장을 교체한다. 3번 연임한 나동민 사장에 이어 김용복 전 우리아비바생명(현 DGB생명) 사장이 신임 사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하지만 2017년 만료되는 방카룰 등 앞으로의 길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나동민 농협생명 사장은 오는 3월 1일 임기가 만료된다.

나 사장은 지난 2012년 3월 농협생명의 초대 사장으로 선임된 후 회사의 급성장을 견인했다.

생명보험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출범 첫해 1188억원에 불과하던 당기순이익은 매년 15%가량 성장해 지난해에는 157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월납초회보험료는 매년 17% 이상 성장한 1293억원을 기록했다. 시장점유율도 9.6%를 기록, 출범 초기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

농협생명은 이 같은 성장세로 지난해 생보업계의 인력감축과 점포통폐합 흐름 속에서도 설계사를 확충하고 점포를 늘렸다.

교보·한화·삼성생명 등 빅3는 지난해 11월 기준 본부·지점·영업소 등 점포수는 2159개로 지난 2012년 말보다 13.5% 감소했다. 이 기간 이들 빅3의 소속설계사도 15.42% 감소했다. 반면 농협생명은 이 기간 점포수와 설계사가 각각 61%, 33% 증가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농협생명의 이 같은 성장에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방카룰 유예기간이 2017년 만료되고 소속 설계사 수도 아직 부족하다는 것.

농협생명은 출범 당시 한 은행에서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판매 비중이 25%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제(방카룰)를 2017년 3월까지 유예받았다. 이후 농협생명은 5700여개의 지역단위 점포를 활용해 급격히 성장할 수 있었다.

방카슈랑스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지난해 11월 현재 농협생명의 초회보험료 중 방카슈랑스의 비중은 95.14%에 달한다. 반면 설계사를 통한 초회보험료는 3%에 불과하다.

보유계약 중 저축성보험의 비중도 빅3보다 높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자산규모를 키울 수 있지만 최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역마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1월 기준 농협생명이 보유한 저축성보험 비중은 54.4%로 삼성(21.4%), 한화(24.4%), 교보(21.6%) 등보다 두 배가량 높다.

전속 설계사 숫자도 아직 빅4보다 크게 부족하다. 농협생명의 전속설계사 수는 2590명으로 삼성(3만441명)·한화(2만2543명)·교보(1만9719명)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농협생명이 방카룰 유예를 이용해 성공적인 시장안착을 했지만 저축성위주의 상품 포트폴리오와 설계사 교육 등 면에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김용복 내정자가 앞으로 회사의 약점을 보완할 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YG 팬들 모여라"

YG엔터 특화 탑재한 카드 출시

빅뱅, 2NE1 등 YG엔터테인먼트 팬들을 위한 맞춤형 카드와 적금이 나왔다.

23일 우리은행과 우리카드는 YG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YG 특화서비스를 담재한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선보이는 '우리YG체크카드'는 YG의 CI를 활용한 디자인부터 YG공연티켓 할인과 YG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인 eshop 할인 등 팬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20~40대 젊은 층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온라인몰과 온라인서점, 토익응시료 등도 할인해 준다.

아울러 모든 영화관 3000원 할인부터 커피 20%할인, 패밀리레스토랑 10% 할인,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50% 할인 서비스도 추가로 누릴 수 있다.

'우리YG적금'은 1년제 정기적금 상품으로, 개인 대상으로 월 3만원이상 30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출시일 현재 우대금리 0.3%p를 합산해 최대 연 2.5%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이나 스마트뱅킹으로 적금 신규시 0.1%p 우대해 준다. 적금 만기시까지 우리YG체크카드를 보유하고 발급일로부터 2개월이 속한 달까지 10만원 이상 사용시 0.2%p 추가 우대한다.

한편 우리카드는 YG체크카드 출시 기념으로 YG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도 실시한다.

YG체크카드 발급 후 10만원 이상 사용한 고객은 추첨을 통해 YG 사옥투어와 '리미티드 에디션 카드 패키지' 등을 경품으로 받을 수 있다.

사옥투어는 YG아티스트의 연습실과 작업실 견학, 구내식당에서 식사, 기념촬영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리미티드 에디션 카드 패키지'는 YG 계약 기념으로 한정 제작되며 신소재를 사용해 특수 제작한 소장용 카드다. 이는 빅뱅과 싸이, 2NE1 등 YG아티스트들에게도 제공된다.

이밖에 패키지에는 다양한 쿠폰(문샷 10만원 상당 메이크업 서비스 쿠폰, 미니어처 키트 제공 쿠폰, 우리은행 환전 우대 쿠폰 등)도 포함된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이번 상품 출시는 우리은행·우리카드가 문화·공연 컨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 YG와 업무협약을 맺은 결실"이라며 "YG와 함께 공동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이나 청소년·수험생을 위한 이벤트를 기획 중"이라고 말했다.

/박상진기자 ·

KHUNK X BIGBANG Art Toy /우리카드 제공

설 연휴 끝나자마자 상승한 코스닥 설 연휴가 끝나고 첫 거래일인 23일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42포인트(1.05%) 오른 615.52에 거래를 마쳤다. /연합뉴스

모뉴엘 악재… 수출입은행 '휘청'

BIS비율·건전성 5년래 '최악'

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이 모뉴엘과 같은 기업발 악재에 최근 5년 내 BIS비율 등 건전성 지표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수은의 BIS비율은 10.55%로 추정됐다.

이는 10.63%를 기록했던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특히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시중은행의 BIS비율이 15.63%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은이 시중은행보다 5%가량 떨어지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매년 반복적으로 자본금을 출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이후 위험가중자산이 그보다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출자가 아니었다면 BIS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99%로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전년 말과 비교하면 0.48% 증가한 규모로 고정이하여신이 1년 사이 7362억원 증가한 데에 따른 것이다.

시중은행(1.36%)과 비교해서도 0.6% 이상 높다. 최근 5년간 수은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시중은행보다 높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반면 고정이하여신의 급증에도 대손충당금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해 수은의 부실채권 커버리지비율(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은 115.8%로 IFRS가 도입된 2013년과 비교해도 1년 만에 90%가량 하락됐다. 재무 건전성과 여신 건전성은 물론, 손실흡수능력까지 악화된 것이다.

한편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604억원으로 그 이전에 보다 7억원 가량 상승했으나 최근 5년 평균의 62.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박 의원은 "정책금융기관 특성상 경기민감 업종에 상대적으로 많은 여신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수출입은행의 건전성 악화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며 "최근 모뉴엘 사태 등으로 신뢰에 금이 간 상황을 고려하면 수출입은행은 재무적 비재무적 모든 지원에서 위기에 봉착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은은 '정부가 어떻게든 메꾸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실적위주의 경영전략을 탈피해 은행 경영과 내부통제에 있어 대대적인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명준기자

LH, 우간다 신도시 입지선정 용역 수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자개발은행에서 발주한 '우간다 캄팔라 신도시 입지선정 용역'을 수주했다고 23일 밝혔다.

LH-사엠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지난해 11월 다자개발은행 중 하나인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이 발주한 '우간다 캄팔라 신도시 입지선정 용역'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이어, 최근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42만4000 달러(약 4억7000만원)이며, 계약기간은 8월 22일까지 6개월이다.

LH의 그동안 해외사업은 정부·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하는 '정부개발협력'에 치중해 왔다. 그러나 국제기구가 발주한 사업을 직접 수주함으로써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는 '다자개발협력'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사업 위치도

LH는 이번 용역 수행을 바탕으로 앞으로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KOICA)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진행할 캄팔라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사업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다자개발은행 발주사업은 위험이 적고 국제적 평판 제고와 안정적 금융조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내 기업들은 사업실적·사업정보 및 주재국 현지 정보 부족 등으로 참여가 미비했다.

LH 해외사업처 관계자는 "이번 수주한 용역이 규모는 작지만 LH의 국제개발 협력과 민간기업 해외진출 지원이라는 공적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현욱기자

우리銀 '대포통장과의 전쟁'

"예금계좌 개설·통장 재발행 절차 강화"

우리은행은 23일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금계좌 개설기준과 통장 재발행 절차는 강화된다. 또 불명확한 거래 목적이나 대포통장 의심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좌 개설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제출한 후에도 30일간 자동화기기와 전자뱅킹 등 비대면 채널 가입 이용이 제한된다.

아울러 6개월 이상 무거래 계좌에 대한 통장 재발행시 신규와 같이 거래목적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설이 가능해진다. 우리은행은 향후 장기 무거래 계좌에 대한 자동화기기와 전자뱅킹 이용한도를 축소할 예정이다.

특히 관계부서장 회의체인 '대포통장 Zero 협의회'를 격주마다 개최해 대포통장 증감과 대책내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난해 12월 도입한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를 올해 6월까지 추가로 업그레이드하고 2월 말까지 신속지급정지제도 등 도입해 대포통장에 대한 식별능력을 높인다. 또 사고 발생후 신속한 지급정지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기간을 분석한 결과 계좌 개설일로부터 1개월 이내 대포통장 발생비율이 약 40%"라며 "의심거래 계좌에 대해 개설원칙을 강화하고 개설한 이후에도 사용이 어려도록해 사회적 이슈인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발생 예방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_sa0208@metroseoul.co.kr

수도권 전월세이사 거리 2㎞ 미만 '절반'

수도권에서 전월세 주택으로 이사하는 주민의 절반 이상이 기존의 주택에서 2㎞ 미만 거리로 이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경기개발연구원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수도권 임차가구의 주거이동 특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거래는 2011년 52만7000건에서 2013년 45만6000건으로 2년 사이 7만1000건(13.5%) 줄었다.

반면 월세거래는 25만1000건에서 27만2000건으로 2만1000건(8.4%) 늘었다.

전세는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이주한 건수(8만7000건)가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이주한 건수(5만9000건)보다 많았고, 월세는 서울시로의 이주(4만5000건)가 경기도로의 이주(3만6000건)보다 많았다.

특히 이동거리를 분석한 결과 전월세 거래 모두 2㎞ 미만이 55% 내외였다.

전세의 경우 2㎞ 미만이 55.6%를 차지했고, 10㎞ 미만이 전체의 78.9%였다. 월세 역시 2㎞ 미만이 54.8%로 집계됐고, 10㎞ 미만이 79.9%에 이르렀다.

/박선옥기자 psok@

글로벌 리스크 완화 증시 활성화 기대감

설 연휴 기간 동안 그리스 불안, 미국 기준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되면서 한국 증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일(현지시간)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이 타결되면서 그리스 디폴트·그렉시트 우려가 잠잠해졌다.

그리스와 유로존 채권단은 이날 긴급 유로그룹 회의를 통해 구제금융을 4개월 더 연장키로 합의했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그리스의 구제금융 연장은 그리스 디폴트·그렉시트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지만 당분간 우려를 완화하는 데는 큰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 금리 조기인상 가능성도 낮아졌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가 공개한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많은 수의 위원들이 이른 금리 인상이 견고한 경제활동·고용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고 연준의 목표인 완전고용·물가안정의 진전 속도를 억제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연구원은 "1월 미 FOMC 의사록에 나타난 금리 조기인상 완화 기조는 연준의 조기 인상 가능성을 축소시켰고 인상 속도 역시 느려질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분석했다.

대외 리스크가 약화되면서 투자심리 개선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지난주 글로벌 증시는 상승세를 보이며 활기를 띠었다.

미국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나스닥 종합지수는 각각 0.7%, 0.6%, 1.3% 상승했다. 독일 DAX 지수도 0.8%, 프랑스 CAC 40지수는 1.5% 상승 마감했다.

17일 코스피지수 역시 장 중 1970선을 기록하며 글로벌 증시 상승의 영향을 받았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향후 대외 리스크 완화에 따른 외국인 순매수를 기대해 볼 수 있다"며 "한국 주식시장은 글로벌 증시 상승에 동조화될 가능성 높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대외 리스크 완화로 외국인뿐 아니라 연기금 등 기관의 자금 집행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외국인·연기금의 순매수 확대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형주의 수급 여건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코스피지수 2000선 회복도 점쳐질 전망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유동성 모멘텀 강화와 글로벌 리스크 축소로 코스피 2000선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미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금융시장이 변화돼 조선·기계·비철금속의 실적 상향조정, 에너지업종 개선세 등 업종별 이익전망치 변화가 이어졌고 이는 코스피시장에서도 변화를 야기할 것"이라 설명했다.

/이보라기자 purple@

증권사, 고객 모시기 경쟁

3년 공짜 수수료·中 펀드분석 상담 등 다양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증권사들이 한 명의 고객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기존 수수료 인하 경쟁 뿐만 아니라 고객 펀드 상담, 수신자부담 상담 전화 등 고객 유치 방식도 다양해졌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가 받는 위탁매매 수수료의 무료 기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그동안 증권사들의 수수료 무료 기간은 1년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3년 공짜시대의 막이 본격적으로 올랐다.

우선 신한금융투자는 업계 최초로 에스라이트 계좌를 개설한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주식 거래를 하면 3년간 무료수수료를 제공하는 '에스라이트 삼매경(삼년간 매력적인 수수료를 경험하세요)' 이벤트를 벌인다. 에스라이트는 신한은행과 우체국에서 증권계좌를 개설해 이용할 수 있는 신한금융투자의 증권서비스다. 계좌 하나로 은행, 증권의 복합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주식은 물론 선물옵션·각종 금융상품까지 거래할 수 있다. 에스라이트 삼매경 이벤트는 3년 동안 보배일 주식매매 수수료를 지원하는 행사다. 내달 27일까지 업계 최초로 신한은행과 우체국에서 에스라이트 계좌를 개설하고 스마트폰으로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주식워런트증권(ELW)을 거래할 때 무료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IG투자증권도 올 한해 신규 고객에게 주식 매매 수수료를 3년간 받지 않기로 했다. KDB대우증권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3년 무료 거래수수료 이벤트를 열고 있다.

차별화를 시도하는 증권사들도 늘고 있는 추세다.

유안타증권은 다음달 말까지 중국펀드를 보유한 투자자에게 펀드 분석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펀드 긴급점검 이벤트를 실시한다.

유안타증권 고객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 펀드를 보유한 모든 투자자에게 제공된다. 가까운 유안타증권 지점 방문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상담고객 선착순 500명에게는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한다. 상해A주에 투자하는 위노우차이나 펀드 가입고객에게는 가입금액에 따라 5만원, 2만원 상품권을 증정한다.

유안타증권 최성열 마케팅팀장은 "중국펀드 가입자 중 본인의 펀드가 상해A주에 투자되는지 홍콩H주에 투자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투자자가 드물다"며 "중화권 리서치 네트워크의 투자정보를 바탕으로 중국 주식 포트폴리오 전략도 함께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전화 상담 서비스가 무료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근 많은 금융사의 상품 상담 전화가 유료라서 고객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지적이 일자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정익기자 pji@metroseoul.co.kr

동부증권, 연 4.0% 특판ELS 판매 동부증권(대표이사 사장 고원종)은 23일부터 26일 정오까지 총 30억 원 한도로 '동부 메이저스프 제계플러스 주가연계증권(ELS) 제1회'를 특별 판매한다 /동부증권 제공

한-UAE 자본시장 분야 협력 확대

한국증권금융, 두바이거래소와 MOU 체결

한국증권금융이 두바이·태국 금융기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증권금융은 현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거래소(DFM)를 방문, 두 기관의 상호협력과 정보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한·UAE 자본시장'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직원 연수와 UAE 증권금융회사 설립 지원을 위한 협력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민지기자 min@

거래소, 상장심사항목 축소… 심사기준 객관화

한국거래소가 상장심사기준을 49개에서 34개로 축소, 심사기준도 객관화하는 등 상장심사제도를 전면 개선했다고 밝혔다.

23일 한국거래소는 ▲심사기간 단축 ▲투명성 제고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상장심사지침을 전면 개정하고, 이를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앞으로 상장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기업의 상장준비 단계에서부터 자문 및 자료를 제공한다.

앞으로는 투자은행(IB)이 상장 준비 기업과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면 이를 거래소에 통지해, 거래소가 상장 준비 기업에 상장 관련 자문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거래소는 중복되거나 중요도가 낮은 심사항목을 삭제해 전체 심사항목 수를 기존 49개에서 34개로 줄였다.

심사기준도 오해 여지를 축소,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체화·요건화했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거래소는 해당 기업이 개선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을 요구, 이를 이행했는지를 상장 후 1년간 점검한다.

외국기업과 부동산투자회사(리츠사) 특성을 반영한 질적심사기준 특례도 마련됐다.

외국기업은 설립지 법령 위반 여부, 사업 지회사의 관련 법규 위반 여부, 공모자금의 충실한 사용 여부 등을 심사받게 된다.

리츠사의 경우 거래소가 안정적 이익 및 배당 가능 여부를 심사한다. 기업활동의 규격한 의사가능성 등의 심사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장애요인 조기 해소, 심사소요기간 단축, 심사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비용이 절감되는 등 이용자 중심으로 상장심사제도를 개선했다"며 "이를 통해 유망기업의 상장이 촉진되어 양질의 신상품 공급과 시장에 활력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보라기자

현대엠코, 정의선 땅 관리회사 부당지원 의혹

퇴촌 토지 임대 대가 8억 지급… 법조계 "배임 가능성"

지난 22일 경기도 퇴촌면 관음리 한 야산 입구에 들어서자 왼편 100여평 대지에 이름 모를 묘목 200~300여 그루가 보란 듯이 심겨져 있다. 안으로 들어가니 드넓게 펼쳐진 대지와 산림 곳곳에 엠코 조경지 '엠코 잣나무 조림지'란 팻말이 세워져 있다. 입구에 있는 묘목 외에는 야생의 숲이다. 서림개발(주)이 목장용지 등으로 소유·관리하는 산림의 전경이다.

서림개발은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회사다.

정 부회장은 서림개발 본사가 있는 퇴촌면 일대에 확인된 것만 30여만평, 풍문으로는 수백만평의 땅을 보유하고 있다.

서림개발은 본디 이 일대 토지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었다. 정 부회장은 2009년 이 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땅을 넘겨받았다.

2007년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비자금 조성과 경영권 편법승계 시도 등의 혐의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유죄판결을 받은 직후다.

23일 서림개발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을 살펴보니, 이 회사는 현대차그룹에 편입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8억원을 계열사인 현대엠코(현 현대엔지니어링)로부터 토지 임대료 명목으로 받았다.

2009~2012년에는 매년 1억8000만원, 2013년에는 8000만원이었다. 2014년도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문제는 현대엠코가 그동안 서림개발에 준 8억원의 성격이다.

현대엠코와 서림개발측은 토지임대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서림개발 사업보고서에 나타난 계약목적을 보면 수의계약을 통한 조경사업용 묘목 등 식재 목적 토지 장기임대라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현대엠코측은 왜 굳이 본사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 정의선 부회장 소유 땅을 임대해야 했는지, 이를 통해 실제로 조경수를 얼마나 기르고 보관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실제로 현장 곳곳에는 '엠코 조경지'라는 팻말이 솟아있다. 일부 팻지에 이름 모를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지만, 통상 아파트 등 조경용으로 쓰는 소나무 등은 찾기 힘들었다. 흉식첩 그런 분위기만 풍긴다는 인상이었다.

현대엠코 같은 대형 건설사가 조경용 나무 묘목을 직접 기른다는 것도 업계 관행상 이례적인 경우라는 지적도 있다.

복수의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조경수는 조경 전문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납품받아 식재하는 것이 통례다.

2009~2013년 서림개발은 매년 1억~1억5000만원 상당을 3~4명의 임직원 급여와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와 세금과공과 등으로 지출했다.

서림개발은 연결재무제표 상 2010년 이후 연평균 1억원이 넘는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을 매년 내고 있다.

정 부회장은 2013년 유상증자를 통해 9억5000만원을 서림개발에 추가로 투자했다.

결국 서림개발은 현대엠코로부터 받은 임대료 덕분에 그나마 필수 불가결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 부회장 개인 부동산 관리회사의 운영비를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엠코가 '토지임대료'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셈이다.

법조계는 대기업 그룹 계열사가 손해를 감수하고 다른 계열사를 지원한 것이 확인되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고등법원 한 부장판사는 "명목상으로 적시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돈이 쓸데 없이 나갔다면, 관계 회사 대표 등에게 배임 혐의를 물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성범기자 roman@metroseoul.co.kr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서림개발 소유 야산 입구 어귀에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엠코의 표식이 세워져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신광수, 웅진에너지 살려냈다

올해 1분기 실적도 기대 2015년 경영정상화 원년

신광수(사진) 대표이사가 웅진에너지를 이끈 지 6개월 만에 분기별 영업이익을 흑자로 전환했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웅진에너지는 지난 4분기 매출액 361억원, 영업이익 5억원을 기록했다. 2011년 3분기 적자전환 이후 14분기 만이다.

태양광 산업의 회복세와 작년 7월 취임한 신 대표의 재무 관리 능력이 시너지 효과를 냈다. 웅진에너지 관계자는 "아직 실적을 자랑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한 뒤 "실적회복기에 들어선 만큼 매출 시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광수, "태양광 사업 꼭 살려라"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특명 받아

신 대표는 2006년 웅진씽크빅 경영기획실장으로 웅진그룹과 인연을 맺었다. 2006년에 웅진 계열사인 북센 대표이사를 거쳐 2010년부터 웅진홀딩스 대표를 맡았다.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북센을 흑자로 전환시킨 그는 웅진그룹의 법정관리 조기졸업까지 이끌었다.

신 대표는 작년 7월 웅진에너지로 자리를 옮겼다. "태양광 사업을 꼭 살려라"는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특명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태양전지용 잉곳과 웨이퍼 생산기업인 웅진에너지는 웅진그룹이 특별히 힘을 싣고 있는 계열사다.

2012년 9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웅진그룹은 매출 2조원 대 주력 계열사였던 웅진코웨이는 물론 웅진케미칼, 웅진식품 등을 매각하면서도 웅진에너지를 품었다.

웅진홀딩스는 웅진에너지 지분 38.9%를 보유하고 있다. 작년 5월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를 조기 졸업함과 동시에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한 배경으로 웅진에너지의 실적 개선이 꼽힌다.

◆14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비결은?

신 대표는 "원가절감이 최선의 전략"임을 강조하며 생산력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의 저가 태양광판 공격을 버텨내기 위한 강력한 방안으로 비용절감을 꼽은 것.

신 대표는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을 직접 만나 공급가 인하를 요구하는 등 비용절감에 진두지휘로 나서고 있다. 연구개발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덕분에 2m를 생산하는데 58시간이 걸리던 잉곳 생산시간이 현재 48~50시간으로 줄었다.

웅진에너지 관계자는 "올해를 경영정상화의 원년으로 삼고 실적회복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난제는 남는다.

중국과 원가경쟁 문제다. 중국은 세계 태양전지 모듈 시장의 약 50%(생산량 기준)를 점유하고 있다. 중국 태양광 산업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 따른 대규모 투자와 저임금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원가경쟁력을 자랑한다. 한국 태양전지 모듈의 70% 수준의 가격을 자랑하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웅진에너지가 어디까지 원가를 줄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주요 원재료인 폴리실리콘과 원부자재인 석영, 흑연 등의 고가의 원재료가 제조비용의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환율과 국가정책 등에 따라 원료 수급에도 영향을 받는다. 웅진에너지의 수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소라기자 sora@

제주항공 사내모델 7기 제주항공은 7기 사내모델 객실승무원 12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신규노선 취항식과 홍보영상 촬영 및 각종 대내외 행사 등에 참여해 제주항공을 대표하는 얼굴로 활동하게 된다. /제주항공 제공

대한항공, 중국노선 4개 신규취항

대한항공이 올해 상반기 중국 4개 노선에 신규 취항한다.

대한항공은 3월 30일 인천~허페이, 5월 11일 인천~난닝, 제주~구이양, 6월 22일 대구~선양 노선을 각각 신규 취항한다.

인천~허페이 노선의 출발편(KE813)은 매주 월, 화, 목, 토, 일요일 오전 8시 30분 인천을 출발해 오전 10시 10분 허페이에 도착한다.

귀국편(KE814)은 오전 11시 10분 허페이를 출발해 오후 2시 40분 인천에 도착한다.

인천~난닝 노선은 주 3회(월, 수, 금) 오후 6시 55분 인천을 출발해 현지 오후 10시 50분 도착하는 스케줄로 운영된다.

제주~구이양은 주 3회(월, 수, 금) 오후 9시 55분 제주를 출발해 다음날 오전 12시 45분 구이양에 도착하는 스케줄로 운항된다.

6월 22일부터 운항예정인 대구~선양은 주 3회(월, 목, 토) 오전 10시 대구를 출발, 현지 오전 11시 10분 도착하게 된다.

인천~허페이, 인천~난닝, 대구~선양 노선에는 전 좌석에 주문형 오디오비디오(AVOD)시스템이 장착된 B737-800 기종이 투입된다.

대한항공은 신규 취항을 기념해 3월 3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행 항공권을 구매하는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동남아노선 항공권, 한진관광 여행상품권 등을 증정한다.

/이성범기자

'비운의 기업' 팬택 기사회생 길 열렸다

원밸류에셋과 수의계약 임박… 인수가 1000억원대

지난해 새 주인을 찾지 못해 벼랑 끝에 몰렸던 팬택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내 벤처 성공신화의 대표 기업 팬택이 두 번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 등의 험난한 여정을 거친 끝에 새 주인을 맞는다.

법정관리 중인 팬택의 새 주인은 금주 내 확정될 예정이다. 새 주인은 미국계 자산운용사 원밸류에셋매니지먼트가 구성한 컨소시엄으로 매각 방식은 수의계약 형태가 될 예정이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 파산부는 이르면 이날 또는 24일 팬택과 원밸류의 계약을 공식 허가할 계획이다. 계약 형태는 원밸류 측이 앞서 요구한 수의계약 방식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계약을 허가하면 원밸류는 팬택과 본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원밸류가 제시한 인수가격은 1000억여원 규모다. 향후 3년간 임직원의 고용 보장과 함께 휴직 중인 임직원도 모두 복귀시키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매각은 단순히 새 주인을 맞이하는 것을 넘어 팬택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현재 원밸류는 중국 최대 온라인기업인 알리바바 계열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은 상태다.

결국 샤오미가 자국에서 소매 유통망이나 제3의 판매자를 두지 않고 온라인 판매만으로 시장을 잠식했던 것처럼 알리바바의 유통망을 활용해 팬택 브랜드와 제품 기술을 내세운다면 충분히 중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

원밸류는 지난 13일 "팬택 인수 후 중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맺고 알리바바 자회사인 티몰(T몰) 등을 통해 중국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며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될 시 이르면 오는 4월중 팬택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매출과 연결되려면 상당 시간 소요될 전망이다.

팬택은 1500여 명에 이르는 직원 중 절반이 유급 휴직 중이고 생산공장도 멈춘 상태다. 때문에 원밸류와 순조롭게 매각이 진행되더라도 올 3분기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팬택이 '비운의 기업' 꼬리표를 떼고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승용기자 ysy@metroseoul.co.kr

LG전자, MWC서 보급형 스마트폰 4종 공개

LG전자가 새로운 보급형 스마트폰 라인업을 공개하고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선다.

LG전자는 다음달 2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2015'에서 기존 L시리즈, F시리즈 등 보급형 라인업을 개편해 화면 크기와 사양별로 신규 라인업 4종을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제품은 'LG 마그나', 'LG 스피릿', 'LG 레온', 'LG 조이'로 4종 모두 LTE와 3G용으로 각각 출시된다. 이들 제품은 이달 브라질을 시작으로 유럽 등 주요 글로벌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이 제품들에는 실용적인 하드웨어 사양에 LG전자만의 프리미엄 디자인과 UX를 확대 적용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상위 모델인 마그나와 스피릿은 보급형 스마트폰으로는 처음으로 부드러운 곡면 디자인을 적용했다. 또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주로 적용돼 왔던 '인셀터치(In-cell Touch)' 방식의 디스플레이를 채택했다. 인셀터치는 터치 센서를 LCD와 통합해 더욱 얇고 가벼운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화질이 선명하고 터치할 때 반응 속도도 빠르다.

마그나는 5인치 인셀터치 디스플레이, 1.2~1.3기가헤르츠(GHz) 쿼드코어 프로세서, 800만 화소 후면 카메라를 탑재했다. 특히 셀프카메라를 즐겨 찍는 트렌드를 반영해 500만 화소의 전면 카메라를 장착했다. 배터리 용량은 2540밀리암페어(mAh)로 동급 최대 수준이다.

스피릿은 4.7인치 인셀터치 디스플레이, 1.2~1.3기가헤르츠(GHz) 쿼드코어 프로세서, 8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했다. 이외에 각각 4.5인치와 4인치 디스플레이를 채택한 '레온'과 '조이'는 고급스러우면서도 미니멀한 디자인을 갖췄다. 마그나, 스피릿, 레온에는 최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5.0 '롤리팝'이 적용됐다.

/정혜인기자 hij@metroseoul.co.kr

삼성 '갤S6' 점유율 회복 효자 되나

부진한 스마트폰 사업 구원투수… 부품업체 실적 기대감 최고조

삼성전자의 올해 첫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6'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4분기 밋밋한 성적표를 받아든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의 구원투수로 갤럭시S6를 전면에 내세웠으며, 관련 부품과 소재를 납품하는 업체들도 실적 호전을 기대하고 있다.

송은정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삼성의 차기 신모델 갤럭시S6의 공개가 임박한 가운데 신기술과 기능에 대한 수혜 분야, 수혜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은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라고 23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오는 3월 2일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5'에서 갤럭시S6를 공개하고 상반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공략에 나선다.

송 애널리스트는 "신제품의 조기 출시로 관련 부품·소재 업체들의 올해 1분기 가동률은 오는 3월부터 빠르게 상승할 전망"이라며 "신제품의 부품 사양은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며 메탈 바디와 무선충전, 카메라 화소의 개선이 부각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기능 측면에서 새롭게 더해진 전자결제를 주목했다. 앞서 삼성전자가 미국 벤처기업인 루프페이(Loop Pay) 인수를 공식화한 것과 관련해 "마그네틱 전송 보안장치 등 (수혜업계에 대한) 시장 예상에 혁신을 심어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기대감은 애플의 아이폰6 판매 호조로 부품을 납품한 업체들이 덩달아 실적 상승효과를 경험한 학습효과다.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에 디스플레이와 카메라 모듈을 납품한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고공행진했다. 또 일본 무라타제작소, TDK 등 스마트폰 부품 업체들이 엔화 약세와 애플 아이폰 판매 호조에 힘입어 산뜻하게 새해를 출발했다.

송 애널리스트는 "계속되는 아이폰6의 독주로 신제품 출시가 전무한 현 휴대폰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갤럭시S6 수요가 예상수준을 뛰어넘는다면 관련부품·소재 업체들의 연간 실적은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승호기자

삼성전자 글로벌 TV 시장 9년 연속 1위

삼성전자가 글로벌 TV 제조사와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유지했다.

현재 글로벌 TV 시장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LG전자, 소니, 파나소닉 등이 프리미엄 제품으로, 중국 TV제조사 하이센스는 합리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으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23일 시장조사기관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4년 연간 매출 기준 점유율 [illegible]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하며 9년 연속 1위의 대기록을 달성했다.

또 최근 TV 시장의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UHD TV 시장에서도 비약적인 판매량 신장을 기록하고 있다. 2013년 11.9%에서 20%p 넘게 상승한 34.7%의 점유율로 정상에 섰다.

이는 북미 등 프리미엄 시장에서 초고화질 UHD TV와 새로운 형태의 커브드 TV를 앞세워 TV 시장 트렌드를 주도하며 경쟁사와 차별화된 제품으로 고객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북미 시장에서 35.4%의 높은 점유율로 경쟁 업체들을 따돌렸다. 또 중국에서도 UHD TV 시장 점유율 20.4%로 1위를 달성해 프리미엄 시장과 보급형 시장을 동시에 공략한 삼성전자의 전략이 정확히 맞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석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사장은 "지난해 다양한 모델의 프리미엄 제품과 보급형 제품을 앞세워 9년 연속 글로벌 TV 시장의 1위를 달성했다"며 "올해는 SUHD TV의 뛰어난 화질 경쟁력을 앞세워 글로벌 TV 시장 10년 연속 1위라는 대기록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기자

동부하이텍, 중국 SMIC서 '눈독'

보유기술 유출 우려 제기

동부그룹이 동부하이텍에 대한 매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중국 파운드리 업체인 SMIC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 기업의 기술이 중국에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23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중국 IA컨소시엄이 동부하이텍 인수를 포기한 이후 SMIC가 매각주간사인 산업은행과 노무라증권에 인수 의향을 밝혔다. 동부하이텍은 국내 유일의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전문기업으로 비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동부그룹 핵심 계열사지만 동부가 자금난에 부딪치면서 M&A 시장에 나왔다.

지난해 10월 본입찰에는 IA컨소시엄이 유일하게 참여해 우선협상권을 따냈지만 자금조달 등의 문제로 권리를 포기했다. SMIC는 당시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꾸준히 동부하이텍에 관심을 표시해왔다. 이 회사는 퀄컴 등으로부터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업체로 세계 파운드리 시장 5위다.

동부하이텍 부천공장 전경.

동부하이텍 관계자는 "SMIC가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SMIC와 아직 구체적인 협상단계까지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SMIC 이외에 동부하이텍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업계에 따르면 아직 SMIC로부터 바인딩 오퍼는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바인딩 오퍼란 계약이 무산될 경우 일정금액을 내는 형태의 인수 제안으로 제안자의 인수 의지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다.

반도체파운드리 시장은 대만과 중국 업체들이 절대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1200억 위안(20조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동부하이텍은 세계 파운드리 업계 순위 9위권으로 한국 업체 중 유일하게 10위권 안에 포함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부하이텍이 보유한 CMOS 이미지 센서(CIS), 전력반도체(PMIC), 초고화질(UHD) OLED TV용 칩 등의 기술들이 중국에 유출될 경우에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동부하이텍의 반도체 설비 투자에만 2조원 이상이 투입됐다"며 "이렇게 얻어낸 기술이 만약 중국 기업에 넘어간다면 국내 파운드리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혜진기자 hyung1464@metroseoul.co.kr

금호아시아나, 금호고속 다시 품에 안나

IBK펀드 최종매각제안서 제출

금호고속 대주주인 IBK투자증권-케이스톤파트너스 사모펀드(이하 IBK펀드)가 금호아시아나그룹에 금호고속 최종 매각 제안서를 제출했다.

금호그룹은 금호산업과 금호고속을 모두 되찾겠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다며 강한 인수 의지를 드러냈다.

업계에 따르면 IBK펀드는 23일 금호그룹에 금호고속 매각가가 담긴 최종 매각 제안 공문을 보냈다.

IBK펀드는 최종 매각 제안서에서 금호고속의 기업 가치 등을 고려한 매각가격만 써서 보냈다.

금호고속의 매각가는 현금창출 능력과 미래가치를 고려해 산정됐다.

기업의 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EBITDA)에 7~8배를 적용해 가격을 구한다.

금호고속은 비상장사인 만큼 별도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지 않는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금호그룹 제공

금호고속의 작년 기준 EBITDA 수준이 600억원 안팎이라는 점을 반영할 때 매각가격은 5000억원 내외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그룹 측은 "금호고속 인수금액을 검토해 다음 달 9일까지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금호산업과 금호고속을 모두 인수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없으며 인수자금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호산업은 25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받아 본격적인 매각절차에 들어간다.

/김미희기자 rumur@

SKT, 기술력 갖춘 벤처기업 MWC 참가 지원

SK텔레콤은 내달 2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하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5에서 국내 벤처기업 3곳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기업은 SK그룹의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한 나노람다코리아, SK텔레콤의 벤처창업 지원 프로그램(브라보! 리스타트) 출신 비에스엘코리아, SK텔레콤과 함께 공군 무선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참여하는 사이버텔브릿지 등이다.

SK텔레콤은 이들 기업에 대해 전시 부스 설치 비용 공간, 항공권, 숙박료, 행사 입장권 등 행사참가 경비 일체를 지원하고 해외업체와의 원활한 비즈니스 미팅을 돕는다.

이들 가운데 사이버텔브릿지는 이번 MWC에서 카자흐스탄 통신사와 재난통신망 솔루션 공급 계약을 성사시키고 이탈리아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의 기업과도 파트너십을 맺을 계획이다.

물체 성분 분석용 초소형 분광센서를 개발해 기술력을 인정받은 나노람다코리아도 MWC 참가를 계기로 최소 50곳 이상의 해외고객 파트너사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관계자들이 모이는 MWC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글로벌 시장 진출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기회"라며 "기술력을 갖춘 국내 벤처기업이 MWC를 계기로 한단계 도약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선은기자

삼성전자, 액티브워시 체험단 모집 삼성전자는 다음달 15일까지 애벌빨래까지 가능한 신개념 세탁기 '삼성 액티브워시' 체험단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체험단 응모는 애벌빨래와 관련된 사연과 함께 삼성 액티브워시가 필요한 이유를 개인 블로그에 올린 후 삼성전자 이벤트 홈페이지에서 체험단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삼성전자 제공

조남성 삼성SDI 사장, 마그나 배터리 팩 사업부문 인수

조남성 삼성 SDI 사장은 자동차 부품사인 마그나의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팩 사업을 인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삼성SDI 전기자동차 배터리 사업이 날개를 달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평이다.

이번 계약은 삼성SDI가 마그나슈타이어의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팩 사업 전담 자회사인 마그나(Magna Steyr Battery Systems GmbH & Co OG·이하 MSBS)의 지분을 100% 인수하는 방식으로 체결됐다.

삼성SDI가 배터리 팩 기업 중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MSBS를 인수한 것은 급변하는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삼성SDI는 MSBS의 수주 물량을 확보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데 이어 수익성도 개선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는 셀 형태로 공급하는 것보다 팩으로 공급하는 것이 더욱 부가가치가 높다. 특히 앞으로 큰 성장이 전망되는 유럽, 북미, 중국시장에서 MSBS의 배터리 팩 사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고객대응력과 수주경쟁력을 크게 높일 전망이다.

삼성SDI 관계자는 "배터리 솔루션 제안 완성과 팩 사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회사를 인수했다"면서 "이번 인수를 계기로 완성차 업계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삼성SDI는 오는 4월 1일자로 MSBS를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다.

/양소리기자 Dsound@

LG유플러스, 차량용 미러링서비스 '카링크' 중동 수출

LG유플러스는 중소기업 유브릿지와 공동 개발한 차량용 미러링 서비스 카 링크(Car Link)를 중동으로 수출한다고 23일 밝혔다.

카 링크는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스마트폰을 연동(미러링)한 서비스다. 내비게이션 화면에서 전화·동영상·음악감상·모바일 게임 등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무선으로 스마트폰과 내비게이션의 연동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현대엠엔소프트·현대미이스터·팅크웨어·아이머큐리·모비다 등 국내 내비게이션은 물론 벤츠 A·C·E 클래스, 폭스바겐 전 차종, 인피니티 Q50, BMW 미니 등 수입차에 장착된 내비게이션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하다.

LG유플러스 측은 "사물인터넷(IoT)과 더불어 미래 핵심 먹거리로 부상한 스마트카 분야의 첫 해외진출인데다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중동을 시작으로 스마트카 분야 해외진출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송선은기자

유통업계, 봄상품 '할인 전쟁'

신학기·이사철 맞아 혜택 '풍성'

유통업계가 따뜻한 봄을 맞아 다양한 할인 행사를 펼친다. 연이은 소비침체와 경기불황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만큼 이번 행사를 통해 매출 반등을 노린다.

롯데마트는 3월 11일까지 모든 점포에서 인테리어 소품과 청소도구 등 집 단장 용품을 최대 25% 저렴하게 파는 '새봄 맞이 기획전'을 연다. 작은 분위기를 바꿔주는 패턴 디자인 소품으로 디자인 방석(40*40cm·사진)을 5900원에, 소파패드(70*180cm)를 9900원에 선보인다.

홈플러스는 같은 기간 전국 140개 점포에서 신학기 용품 대전을 연다. 준비물 걱정을 덜어주는 '문구가방 세트'는 종합장, 사인펜, 연필, 색종이, 크레파스, 스케치북 등 기본 문구류와 책가방을 하나의 세트로 구성해 1만7900원 가격 특가로 선보인다. 특히 여아용은 겨울왕국, 남아용은 파워레인저 상품으로 구성됐다.

G마켓은 3월 22일까지 망고·에잇세컨즈·포에버21·스파오 등 4개 SPA 브랜드의 2015년 봄 여름 신제품을 선보이고 제품 구매 시 20%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옥션은 봄 상품을 최대 65% 할인판매하는 '옥션 다시 봄' 행사를 연다. 생활용품 코너에선 3M 막대걸레+정전기포 100매+물걸레 60매를 반값인 1만9400원에, 리큐 진한겔 리필 2.1ℓ x6개를 2만1900원에 각각 판매한다. 한철기 입맛을 돋우는 먹거리로는 생산자 직송 판매관 '팜스토리'의 봄나물(2200원)과 사세의 양꼬치 간장게장(2kg/2만2900원) 등이 있다.

GS샵은 3월 1일까지 TV와 모바일 인터넷몰을 통해 '취나한 봄' 특집을 실시한다. 25일 저녁 8시40분에는 다양한 위치에 부착해 수납공간을 만들 수 있는 까사미루 이동식 3단행거(9만9000원)를 방송한다. 27일 오후 4시 40분에는 볼륨과 바디라인을 동시에 잡아주는 세실엔느 올레이스란쥬(10만9900원) 보정속옷을 편성됐다.

/김보라기자

메치니코프 박사 서거 100주년 발효유 출시

한국야쿠르트가 메치니코프 박사 서거 100주년을 기념해 코카서스 정통 발효유 '메치니코프'(사진)를 출시했다.

'메치니코프'는 발효유의 아버지 '메치니코프 박사'가 유산균의 효과를 연구하면서 주목한 코카서스 지방의 정통 발효유를 재현한 제품이다. 수 천 년을 이어온 코카서스 지방의 오리지널 유산균을 넣어 정통 발효유의 맛과 영양을 제공한다.

마시는 제품은 140ml 1200원, 떠먹는 제품은 90g 800원. 야쿠르트 아줌마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청정원 영양정보와 건강식단' 사이트 오픈

대상㈜ 청정원이 소비자에게 제품 영양정보를 공개하고 건강식단을 게시하기 위한 '청정원 영양정보와 건강식단(www.jungonenutri.com)' 사이트를 오픈했다.

'영양정보 조회' 메뉴는 각 제품별로 주요원료와 제품특징, 영양성분표를 담고 있으며 해당 제품이 포함된 추천식단 또는 활용 레시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추천식단' 메뉴는 건강한 식생활 관리를 위한 맞춤형 식단을 제공한다. 각 식단 별로 인쇄, 다운로드, SNS 전송도 가능해 더욱 활용도가 높다.

자세한 내용은 청정원 영양정보와 건강식단 사이트(www.jungonenutri.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CJ, 취업준비생에게 파우치 1000개 증정

CJ제일제당 쁘띠첼 미초가 27일까지 강남구 역삼동 위포트 취업 아카데미에서 수강생들에게 쁘띠첼 미초(40ml) 1000개를 증정한다. 행사는 명절 기간 스트레스를 받은 취업 준비생들을 위로하고 활력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

쁘띠첼 미초는 100% 과즙을 자연 숙성시킨 과일발효식초로 천연 유기산이 많고 천연 비타민과 카로티노이드 미네랄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

불황 먹고 자라는 편의점?

올해 약 1400개 점포 출점

지난해 소비시장 침체에서 불황 속 승승장구하던 편의점업계가 올들어 다시 출점 경쟁에 나설 조짐이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유통채널이 출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과 상반된 행보다.

CU 제공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편의점 '빅3'는 올해 신규 출점을 1400개 정도로 잡았다. BGF리테일은 올해 CU 점포 500개를 오픈을 목표로 '1위 굳히기'에 나선다. CU관계자는 "지난해 460개의 매장을 늘렸다"며 "올해는 500개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S25는 전년과 비슷하게 올해 400~500개 점포를 새로 열 계획이다.

다만 세븐일레븐 측은 "추정치로 400개 출점목표로 알려졌지만 신규 출점 목표가 따로 없다"며 "2013년부터 양적 성장보단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불황에도 편의점만은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점포 출점을 계속하며 외형을 키우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편의점 매장은 1600개 가량 늘었다. CU는 지난해 말 현재 8408개로 1년 전보다 467개가 증가했다. GS25는 1년 전보다 516개 늘어 8290개를 기록했다. 세븐일레븐과 바이더웨이를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의 점포는 1년 전보다 139개 늘어 7230개에 달했다. 미니스톱의 지난해 말 현재 점포수도 2002개로 1년 전보다 89개가 늘었다. 신세계그룹의 위드미는 지난해 400개 가까이 점포를 늘리며 지난해 말 매장 500개를 돌파했다.

업계는 올해 편의점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약 4% 늘어난 12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편의점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 영업 규제로 인한 반사 이익은 물론 최근 급증한 1~2인 가구 대상 특화 상품 개발도 매출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불황으로 유통 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지만 편의점만은 나홀로 성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보라기자 kimbr@metroseoul.co.kr

'황사패션으로 황사 대비하세요'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은 23일 전국적으로 황사 경보와 주의보가 이어진 가운데 황사 대비용 선글라스와 스카프, 모자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미세 먼지로부터 눈과 호흡기, 두피 등을 보호하기 위한 챙이 넓은 모자, 얼이 큰 선글라스, 스카프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현대백화점 제공

집에서 즐기는 치즈 등갈비·치즈 닭갈비…

식품업계, 뜨는 외식메뉴로 '홈 미식가' 공략

식품 유통업계가 지난해부터 외식업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치즈 등갈비', '치즈 닭갈비' 등의 외식 메뉴를 집에서 손쉽게 재현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놔 '홈 미식가' 공략에 나섰다. '삼시세끼', '오늘 뭐먹지', '냉장고를 부탁해' 등 최근 화제를 불러 일으키는 가정식 레시피 열풍도 홈 미식가 공략에 한몫하고 있다.

매일유업의 치즈 전문 브랜드 상하치즈가 피자치즈 2종 '모짜렐라 피자치즈'(사진 왼쪽)와 '피자치즈 골든믹스'(오른쪽)를 내놨다. 요리에 듬뿍 올리면 쭉쭉 늘어나는 쫄깃한 식감이 뛰어나 치즈 등갈비와 치즈 닭갈비 요리에 제격이다. 숙성시키지 않은 생치즈로 만들어 부드럽고 고소한 우유의 맛과 향이 매콤한 맛과 환상적인 조화를 이룬다.

특히 '피자치즈 골든믹스'는 쭉쭉 늘어나는 모짜렐라 치즈와 고소한 고다 치즈, 진한 향의 체다 치즈가 황금 배합돼 있어 음식에 녹였을 때 더욱 깊고 진한 풍미를 느낄 수 있다. 두 제품 모두 낱개 포장으로 위생적이며 간편하게 이용과 보관이 가능하다.

매일유업 상하치즈 관계자는 "가정에서 간편하면서도 색다른 요리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 치즈를 활용한 요리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며 "이런 트렌드와 맞물려 2014년 피자치즈 시장이 전년대비 10%이상 성장했다"고 전했다.

닭고기 전문 기업 ㈜하림이 최근 선보인 '하림 매실숙성 토종닭 순살닭갈비'는 집에서도 손쉽게 닭갈비 본연의 맛을 재현할 수 있는 제품이다. 뼈를 발라낸 토종닭을 국내산 매실액으로 숙성해 부드러운 육질과 감칠맛을 살리고, 매콤한 닭갈비 양념에 재운 상태로 출시됐다.

롯데마트는 지난달부터 대형마트 최초로 전점에서 등갈비와 피자치즈로 구성된 '치즈 등갈비'를 상품화했다. 기존 시중에 판매되던 매운 맛의 치즈 등갈비 외에도 단콤한 맛까지 추가로 출시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즉석 조리 형태로 구성해 전자레인지나 오븐으로 간편하게 조리가 가능하다.

학자금 지원 국정과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3.0

전국 대학교 총 등록금은 14조 원으로
그 절반인 7조 원을 정부와 대학이 지원합니다.
부모님의 근심을 반으로, 학생들의 꿈은 더 크게!

20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2015. 2. 26(목) 9시 ~ 3. 11(수) 18시까지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www.kosaf.go.kr 접속 후 신청 관련 문의 1599-2000)

신청기준 직전 학기 평점 80점 이상
(100점 만점 기준 조건에 따라 70점 이상 80점 미만자도 수혜 가능)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한국장학재단이 함께 합니다

BYC, SPA형 복합매장 확대

국내 이너웨어 전문기업 BYC가 SPA(제조유통일괄)형 복합매장인 BYC마트의 50호점을 오픈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주 완산구에 새로 오픈한 BYC마트 효자점은 173평의 규모다. 르송·쎌핑크 등의 관계리 브랜드부터 보디히트·보디드라이와 같은 기능성 내의류, 코스메틱 브랜드 코니사까지 폭넓은 브랜드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다. 이 외에 가방·신발·벨트 등 양품류를 위탁 판매한다.

BYC는 서울 청량리점을 시작으로 대림 2호점, 전주 효자동점 등 올해만 레드 신규 매장을 3번째 오픈했다. 향후 200호점까지 원의망을 넓힐 계획이다.

BYC마트 관계자는 "SPA형 복합매장인 BYC마트는 남녀 이너웨어 제품 이외에도 신생아 의류와 잡화까지 판매하고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쇼핑을 즐기기에 적합하다"며 "앞으로 소비자가 매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모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C 제공

/김수정기자

가방·신발 할인 '대공습'

패션업계 신학기 이벤트

패션 업계가 봄 신학기 수요에 맞춰 책가방 등 신상품을 출시한데 이어 할인전에 나서며 학부모들을 공략하고 있다.

LS네트웍스의 스포츠 브랜드 프로스펙스는 남녀공용 백팩 '파워 셀'을 소진 시까지 20% 할인해주는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파워 셀은 라이트 연 스타일의 등판을 적용해 어깨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인체공학적이고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방 전면 특수 가공을 통해 뛰어난 내구성과 가벼운 경량성을 강화했으며 내부와 외부에는 다양한 소지품을 수납할 수 있는 다용도 포켓이 있어 실용적이다. 이와 함께 아동용 가방과 신주머니 세트 구매 시에는 굿윌기(최대 28일까지) 혜택을 제공하고 레고 키체인 증정 이벤트도 함께 연다.

금강제화도 다음 달 8일까지 랜드로바 신학기 이벤트를 벌인다. 랜드로바 학생화 '벡터 슬립온-클라스 슈즈'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또 이벤트 기간 중 엘리트 매장에서 교복을 구입하고 받은 랜드로바 할인권을 갖고 금강제화 랜드로바 매장을 방문하면 랜드로바 전품목을 20% 할인 받을 수 있다.

한편 아웃도어 업체인 오프로드는 백팩과 캠핑백남 등의 가방과 캠핑화·트레킹화·캡직스화 등 다양한 종류의 신발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를 28일까지 연다. 오프로드 가방은 젊은 감각을 담은 카모플라주 패턴과 도회적인 색상, 와펜 장식 등을 적용한 트렌디한 디자인으로 교복을 착용하는 학생들은 물론 젊은 직장인들에게도 활용도가 높다. 신발은 단정한 캐주얼룩에 코디할 수 있는 캔버스화부터 남성용 워커, 트레킹화까지 용도별로 다양한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나른한 봄, '씹는 음료' 어때요?

'입안의 즐거움' 주는 다양한 식감 제품 인기

몸이 나른해지기 쉬운 환절기에 들면서 단순히 마시기만 하는 음료가 아닌, 미각을 자극해 집중력 향상 및 기분전환 효과까지 있는 '씹는 재미'가 있는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코카-콜라사의 세계적인 주스 브랜드 미닛메이드는 지난달 말 전한 망고 복숭아 퓨레에 진짜 과육이 들어있어 씹는 즐거움을 주는 신제품 '미닛메이드 망고 퓨레'와 '미닛메이드 복숭아 퓨레' 2종(사진)을 새롭게 선보였다.

'미닛메이드 망고 퓨레'는 부드러운 망고 퓨레에 진짜 복숭아 과육이, '미닛메이드 복숭아 퓨레'는 상큼한 복숭아 퓨레에 진짜 복숭아 과육이 들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풀무원건강생활의 '풀무원녹즙'은 지난해 12월 생(生) 알로에와 슈퍼푸드 바질씨드 1000알을 함께 담은 '알로에와 바질씨드'를 출시했다. 알로에를 갈지 않아 끈적끈적한 알로에의 점액질과 탱글탱글한 알로에 특유의 식감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 특징이다.

풀무원건강생활의 풀무원프로바이오틱은 혈관 및 장 건강에 유익한 식물성 오메가3를 담은 '식물성유산균 치아씨드'를 지난해 출시했다. 치아씨드는 고대 마야인들이 주식으로 즐겨 먹던 민트 계통 식물인 '치아'의 씨앗으로 식이섬유와 단백질, 항산화물질 등이 풍부해 차세대 슈퍼 푸드로 떠오르고 있다.

정식품은 지난해 '베지밀 과일이 쏙쏙 씹히는 애플망고 두유'를 출시했다. 담백한 맛이 특징인 기존의 두유와는 달리 새콤달콤한 애플망고 과즙에 쫀득쫀득한 복숭아와 나타드코코 알갱이를 넣어 씹는 재미를 더했다.

'코코팜'은 '씹고 먹는 음료' 계의 원조격인 해태음료의 제품 가운데서도 스테디셀러로 꼽힌다.

LG생건, 마스크팩 브랜드 '디어패커' 출시

LG생활건강은 마스크팩 전문 브랜드 '디어패커'를 론칭, 첫 제품으로 '화이트 워터 필링팩', '블랙티&블랙로즈 마스크' 등 2개 제품을 선보였다.

화이트 워터 필링팩은 허물을 벗은 듯 한층 밝아진 피부톤을 느낄 수 있는 저자극 워터 필링 각질케어 팩이다. 매끄럽게 각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흰 버드나무 성분을 함유했으며 히아루론산 성분이 강력한 수분을 공급해 건조하고 탄력이 떨어진 피부에 생기를 더해준다는 설명이다.

블랙티&블랙로즈 마스크는 정제수 대신 로얄 블랙티와 블랙로즈 워터를 77% 함유해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면서 진정과 탄력을 동시에 부여한다.

/LG생활건강 제공

혼수·예단용 식기 준비하세요 23일 오전 서울 휘게이트가 한국도자기 사옥 전시장에서 모델들이 보석과 골드패턴닝을 이용해 고급스러움을 강조한 혼수·예단용 프라우나 시리즈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세먼지에 상한 피부, 클렌징·보습케어 하세요

서울시가 23일 오전 1시를 기준으로 올해 첫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 지방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다. 미세먼지에는 중금속 등 각종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어 호흡기와 폐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특히 두피와 피부에도 악영향을 준다.

미세먼지에 노출된 피부는 트러블과 각종 피부염이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외출 후 피부에 쌓인 노폐물과 미세먼지를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 노하우가 필요하다. 또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씻어내는 데 도움을 주는 클렌징 제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마몽드가 출시한 '연꽃 마이크로 비 일드 클렌징 폼'(사진)은 정화력이 강한 연꽃 성분을 담아 미세먼지와 황사 등에 의해 피부에 쌓인 노폐물들을 씻어주는 제품이다. 모공보다 작은 쫀득한 제형의 마이크로 사이즈 미세거품이 모공 속 깊이 파고들어 미세먼지를 깨끗하게 클렌징해준다고 업계 측은 설명했다.

미세먼지를 깨끗하 씻어냈다면 촉촉한 보습케어를 통해 피부를 안정시켜야 한다. 피부 보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부 속 호흡을 단절시켜 칙칙하고 거친 피부를 만들 뿐 아니라 축적된 노폐물로 인해 트러블과 잡티를 유발하는 등 다양한 피부 고민을 겪을 수 있다. 피부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주는 토너·보습크림·수분팩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최근 출시된 한율 윤기보습크림은 물과 오일이 겹겹이 교차돼 있는 겹보습 윤기 포뮬러가 생성되어 지속적으로 피부에 수분을 채워 넣어 깊은 보습감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주 2~3회 정도는 수면팩 혹은 시트마스크로 수분을 충전할 수 있는 스페셜 케어를 해주고 평소에는 수시로 멀티밤을 가지고 다니며 건조한 부위에 발라 즉각적인 보습관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김수정기자

아이 성장기 이렇게 하세요

수면·올바른 자세 중요… 성장통 계속되면 병원 찾아야

새 학기를 앞둔 학부모들의 고민 중 하나는 내 아이의 성장이다. 또래보다 작거나 뒤처질까봐 늘 걱정이 앞선다. 이에 아이 성장을 도울 수 있는 팁을 소개한다.

먼저 성장기 아이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불규칙한 수면시간이다. 개인에 따라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성장 호르몬이 왕성히 분비되는 시간에 수면장애를 겪게 되면 키 성장에 방해를 받는다. 특히 밤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해야 하며 규칙적인 수면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또 우리나라 10대들은 하루에 보통 4시간 정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이로 인한 '거북목 증후군' 역시 조심해야 한다. 목뼈 형태가 변형되면서 성장을 저하는 것은 물론 체형 불균형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성장기 아이들의 관절 통증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청소년들의 관절 통증을 성장통으로 여겨 무심코 넘기는 경우가 많지만 지속되는 통증은 성장통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더욱이 성장기에는 호르몬 분비로 인해 뼈와 뼈 사이 인대가 느슨해져 있어 운동 중 부상을 입을 가능성도 높다.

이와 함께 스트레스도 내 아이의 성장을 방해한다. 과도한 스트레스가 불안과 우울증, 수면장애를 유발해 성장장애로 이어지는 것이다. 게다가 잘못된 자세는 척추측만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장판을 반복적으로 자극하는 스트레칭도 성장을 돕는 방법 중 하나다.

송영석 연세바른병원 원장은 "장시간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행태가 보편화되면서 수면장애나 척추 질환을 앓는 어린이들이 늘고 있다. 아이들이 제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모가 직접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서울지방우정청 제공

"365일 행복메신저 실현"

김영수 서울지방우정청장 취임

김영수 제4대 서울지방우정청장이 23일 취임했다.

서울지방우정청은 김 청장이 이날 포천 포스트타워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서울지역 232개 우체국과 205개 우편취급국에서 일하는 1만600여 명의 종사원을 이끌며 서울지역 우정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김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서울지방우정청의 슬로건인 '365일 행복메신저'의 실현을 통해 고객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또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살맛나는 직장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청장은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우편정책과장과 총무팀장 등을 역임했다.

/황재용기자

나들이족 위한 간편식 할인 '펑펑'

강강술래 행사 마련… 홈피션 뮤지컬 '로빈훗' 티켓 증정 이벤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명절증후군 극복을 위한 여행이나 나들이를 계획하는 고객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편식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이달 말까지 온라인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주문(060-925-9292)을 통해 100% 한우로 우려내 맛이 진하며 면역력 증진 및 기력 보충에 좋은 한우사골곰탕(500㎖ 10팩 20인분)을 약 50% 할인된 3만6000원에 판매한다.

또 갈비맛 쇠고기육포(10봉·4만2000원)와 흑임자한돈너비아니(360g X3팩·2만9400원), 참참한우떡갈비(360g X3팩·4만6200원)도 각각 30% 할인가로 구매 가능하다.

이 외에 통등심돈가스(3박스 2.16kg)는 3만600원에, 모짜렐라돈가스(3박스 2.16kg)는 3만6000원에 각각 40% 할인 판매한다.

한편 이달 28일까지 홈페이지 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신도림 디큐브아트센터에서 공연중인 대작 뮤지컬 '로빈훗' 티켓을 증정한다.

/김수정기자 ksj0215@

'인사돌플러스' 새 광고 온에어

동국제약, '잇몸건강 동반자' 편 선봬

동국제약(부회장 권기범)이 새롭게 출시한 잇몸약 '인사돌플러스'의 신규 TV광고 '잇몸건강 동반자' 편을 선보였다.

광고는 '인생의 동반자, 잇몸건강의 동반자'를 주제로 메인 모델 최불암과 함께 실제 부인과 동료, 친구가 등장한다. 이들은 따뜻한 동반자 콘셉트를 정감 있게 표현했으며 최불암은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라는 멘트를 통해 제품이 인생의 소중한 동반자처럼 유익한 존재임을 강조했다.

동국제약 제공

인사돌플러스는 기존 '인사돌' 제품에 후박추출물이 첨가된 일반의약품이다.

/황재용기자

눈에 좋은 비타민 알고 먹어야

현대인들이 건강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비타민이다. 비타민은 신체 기능을 조절한다는 점에서 호르몬과 비슷하지만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아 반드시 섭취가 필요한 성분이다. 특히 비타민은 눈 건강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먼저 비타민A는 어두운 곳의 시각 작용을 담당하는 간상세포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비타민A가 부족하면 야맹증이 생길 수 있으며 안구건조증이나 각막연화증과 같은 증상도 비타민A의 부족으로 나타난다.

비타민B1의 경우에는 시신경에 영양분을 공급한다. 비타민B1 결핍되면 시신경 기능의 저하와 함께 시력 저하가 발생한다. 또 비타민B2가 부족하면 눈과 눈꺼풀이 따끔거리면서 통증이 나타나는 결막염을 비롯해 각막 혼탁과 조로성 백내장 등 노화가 빠르게 진행된다. 아울러 비타민B6·7은 눈의 긴장과 피로 예방에 도움을 준다.

이와 함께 비타민C는 노안 예방에 필수적인 성분이다. 비타민C를 많이 섭취하면 피로감을 덜 느끼는 눈을 유지할 수 있으며 실제로 내부 수정체의 외피에는 비타민C가 많이 집중돼 있다. 비타민D 역시 망막 손실과 황반변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우연 GS안과 대표원장은 "먼저 본인의 눈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비타민을 섭취하는 것이 부작용 없이 눈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의협, '국제협력공로상' 수상자 공모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한국화이자(사장 이동수)와 함께 다음달 13일까지 '제10회 대한의사협회 화이자국제협력공로상' 수상자를 공모한다.

국제협력공로상은 의료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의사를 발굴해 국제활동 참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의협과 한국화이자가 함께 제정한 상이다.

의협 회원이면 응모할 수 있으며 수상 후보자 추천 또는 지원을 원하는 기관과 개인은 추천서와 함께 이력서, 국제협력활동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의협은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시상식은 4월 26일 '제67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황재용기자

3월 분양 큰장…연중 최대 5만여 가구

올해 공급물량 11% 차지…수도권 대표 신도시 주목

설 연휴가 끝나고 새 달 전국적으로 5만 가구가 넘는 새 아파트가 공급된다.

2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 5만5252가구가 신규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올 한해 공급 예정인 29만9560가구의 11.1% 수준으로, 연중 최대 물량이다.

3월 건설사들의 분양 물량을 대거 선보이는 데는 이달 27일부터 청약제도가 개편,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이어진 분양시장의 열기가 꺼지기 전 최대한 많은 물량을 털어내려는 건설사들의 움직임까지 더해졌다.

수많은 물량이 쏟아지지만 키워드는 '신도시'로 압축된다. 신도시의 청약결과가 올해 전체 분양시장의 바로미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중 신도시는 전통적인 주거벨트인 강남~분당~동탄으로 이어지는 경부라인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특히 대기 수요가 풍부한 동탄2·위례 등 수도권 대표 신도시가 주목을 받고 있다.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는 반도건설이 A37블록과 A2블록에서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5.0과 6.0' 2개 단지를 분양한다.

둘 모두 교통과 상업·업무시설이 집중된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에 들어서 지구 내에서도 노른자위로 꼽히는 곳이다. 전용면적이 각 동일 59~96㎡로 구성됐으며 각각 545가구와 532가구 규모다.

대우건설도 A1블록에서 '푸르지오' 아파트 공급을 계획 중이다. 60~84㎡ 837가구로 이뤄져 있다.

위례신도시 성남권역에서는 대우건설과 보미종합건설이 분양에 들어간다. 위례의 경우 특수전사령부와 기무부대 이전 지연으로 아파트 분양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로, 이번 물량으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우건설이 C2-4, 5, 6블록에 선보이는 '위례 우남역푸르지오'는 83㎡ 단일 면적으로 자이지며, 630가구 규모다. 보미종합건설이 C2-1블록에 짓는 '위례신도시 보미'는 131가구로 이뤄질 예정이다.

신도시는 아니지만 신도시급의 대단지 아파트도 눈길을 끈다. 대림산업인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동에서 1237가구 규모의 'e편한세상 수지'를, 롯데건설은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1238가구 규모의 '롯데캐슬골드파크3차'를 분양한다. 롯데캐슬골드파크3차는 앞서 공급된 1~2차와 함께 총 4300여 가구의 주거벨트를 형성하는 게 특징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택지지구 등 인기지역은 청약과열 현상이 벌어지겠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 또다시 신규 공급 물량이 많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무리한 청약보다는 분양가 경쟁력이 있는 유망 단지를 중심으로 선별 청약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박선옥기자 pso9120@metroseoul.co.kr

달라지는 청약제도…청약통장 활용법

오는 27일 9.1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청약제도가 간소화된다. 올 상반기 쏟아지는 신규 분양 물량과 함께 청약통장을 사용하려는 이들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무주택 세대원 경우(세대주 여부 관계없이) 국민주택 등 1세대 1주택 공급 허용 ▲수도권 1순위 청약 자격 완화 ▲입주자저축 예치금액의 변경기간 제한 등 완화 ▲유주택자에 대한 감점제도 폐지 및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2017년 1월부터는 민영주택 85㎡ 이하 주택의 4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점제 적용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1순위 청약 자격이 종전 청약통장 가입 2년(납입 24회)에서 1년(납입 12회)으로 단축된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개정안이 시행되는 27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하는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할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가입 1년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즉 지난해 2월 27일 이전에 가입한 이들은 모두 혜택을 받는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무주택자라면 국민주택 등 공공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통장은 나이 제한이 없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 이름으로도 통장을 만들 수 있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청약에 나설 때 감점됐던 제도도 폐지된다.

청약종합저축이 아닌 기존 청약저축 보유자라면 공공분양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택지지구 물량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분양 지역에서 전입 1년 기간을 채우면 거주자 우선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서울 재건축사업으로 일시적 이주가 필요한 주민의 경우 청약저축 거주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서울시의 발표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우선공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거주 1년 이상 요건이 필요하고 동일 순위일 경우 해당지역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유리하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 이주가 필요한 주민에 대해서 해당지역 거주기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했지만 이번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민간분양을 노린다면 공공분양에만 적용됐던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 시 민간분양 청약도 가능하고 청약기간이 인정되는 장점이 있지만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청약할 수 없다.

특히 민간분양 물량이 많은 올 상반기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활용 범위가 넓다. 특히 수도권 기준 전용면적 60㎡ 공시가격 1억3000만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올해부터 무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청약시 불이익이 전혀 없다.

/김학철기자 kmc@metroseoul.co.kr

삼성물산 대학생 기자단 모집 삼성물산이 대학생의 열정과 패기로 삼성물산을 소개해 줄 '대학생 기자단 2기'를 23일부터 모집한다. 앞서 선발된 기자단 1기가 취재를 위해 공사현장을 찾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삼성물산 제공

고개드는 버블세븐…거래총액 2.6배 급증

교통인프라 확충으로 용인은 3.3배

금융위기 이후 침체일로를 겪던 버블세븐지역이 부동산시장 회복 기대감에 힘입어 실거래가 총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부동산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에서 거래된 아파트의 매매가 총액은 135조7133억원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73조7582억원에 비해 1.8배 증가한 금액이다.

수도권 실거래가 총액은 48조9829억원에서 82조2513억원으로 1.6배 늘었다. 경기도가 1.8배(21조9442억→40조2823억원)로 증가폭이 가장 컸고, 서울이 1.6배(21조2966억→34조2083억원), 인천이 1.3배(5조7401억→7조7606억원)로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서도 버블세븐(강남·서초·송파·목동·분당·평촌·용인)지역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들 7개 지역 아파트의 거래가 총액은 지난해 20조5210억원으로 집계됐다. 2008년 7조8906억원보다 2.6배나 늘어난 것으로, 서울·경기지역 거래가 총액 72조4907억원의 29%에 해당한다.

버블세븐지역의 회복세는 용인이 이끌었다. 이 기간 용인시에서 거래된 아파트가 총액은 1조5401억원에서 5조1042억원으로 3.3배나 증가했다. 용인~서울고속도로 용인경전철, 신분당선 연장선 개통 등 교통인프라 확충으로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수요가 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서초구가 1조1724억원에서 3조4023억원으로 2.9배 늘었다. 다른 강남권에 비해 재건축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른 데다, 반포래미안·반포자이 등의 고급아파트들이 잇따라 입주하면서 실거래가 총액이 빠르게 증가했다.

이어 ▲분당 2.7배(1조1378억→3조922억원) ▲강남 2.6배(1조7727억→4조6361억원) ▲목동 1.9배(3734억→7315억원) ▲송파구 1.3배(1조6602억→3조6307억원) 순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버블세븐지역은 금융위기 이후 특히 아파트값이 많이 떨어진 곳"이었다며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감과 맞물리며 거래가 늘고 덩달아 거래가 총액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박선옥기자

대중성·연기력 잡은 '힐러' 지창욱

대학생 땐 로봇 연기 배우 존재감 흐뭇
홀어머니 모시는 외동 아들 "책임감 커"

박민영과 사귀냐고요? 하하하

배우 지창욱(28)은 KBS2 드라마 '힐러'에서 담담한 스킨십 연기로 여심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정작 그는 "편하지 않았다"며 애정신 비화를 공개했다.

"멜로 장면이 많은 건 '힐러'가 처음이었어요. 실제론 정말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제 애인이 아니다 보니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상대방 눈치를 많이 보게 되죠. 향수를 뿌렸고 담배 피우는 것도 참았어요. (웃음) 박민영이 덤덤하게 받아줘서 고마웠죠. '진짜 사귀냐?'라고 오해하게 만드는 게 배우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시청자를 어떻게 설레게 할까 고민했어요."

'힐러'를 통해 연기력을 인정받았고 국내외 인기도 급상승했다.

"서정후 역은 정말 좋은 캐릭터죠. 그런데 유치하게 묘사될까봐 걱정했어요. 변장해서 위장 취업을 하고 슈퍼맨처럼 액션을 하는 것들이요. 담담하게 연기하려고 했어요. 멋있는 척을 하지 않는 게 멋으로 비춰지길 바랐죠. 능글 맞아졌어요. (웃음) 원래 제 성격이 이런데 그동안 낯선 환경 때문에 감추고 있었죠. 특별한 계기는 없었고 서서히 바뀌었어요. 이제야 조금씩 저만의 색깔이 드러나는 거 같아요."

대학 시절 독립영화에 캐스팅돼 연예계에 발을 디뎠다. 그러나 당시 그는 '밥 먹었어요'라고 대사하는 로봇 연기자였다.

"중학생, 고등학생 때는 공부를 못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고 주입하는 것 때문에 공부가 싫었죠. 막연하게 시작한 게 연기였죠. 연기를 하면 즐거울 거 같아서 대학에 왔는데 또 책을 주면서 공부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무 살 때 방황을 했죠. 그 와중에 재미 붙였던 건 영화부 선배들이 찍는 단편영화에 출연하는 거였어요. 지나가다 캐스팅됐고 그냥 서있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때부터 선배들을 따라 다니면서 밤새도록 단편영화를 찍었죠. 독립영화를 통해 동기들보다 먼저 영화를 찍게 됐고 아르바이트로 뮤지컬을 했어요. 두 작품을 하면서 제가 싫어했던 학교 수업들이 왜 필요한지를 느꼈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대학은 졸업했어요. 1학년 1학기 성적이 한 과목 D 빼고 다 F였죠. 엄마한테는 엄청 혼났지만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웃음)"

2008년 영화 '슬리핑 뷰티'로 데뷔한 그는 드라마 '솔약국집 아들들'(2009) '웃어라 동해야'(2010) '무사 백동수'(2011) '기황후'(2013) 뮤지컬 '그날들' '잭 더 리퍼' 등 다방면에서 활약했다. 그는 "쉬는 걸 잘 못한다"며 다작하는 이유를 말했다.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요. 외동 아들이어서 가장이라는 책임감을 느껴요. 주저앉고 싶어도 저를 일으켜주는 원동력이죠. 그렇지만 이런 환경 때문에 다작하지는 않아요. 저는 쉬는 걸 잘 못하거든요. 가끔 감정이 소진된 거 같은 느낌을 받으면 쉬죠. 재미있게 연기할 수 있을 거 같다고 느낄 때 작품을 선택합니다. 많은 작품에 출연한다는 건 그만큼 표현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기계처럼 연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힐러'에 출연하면서 많은 작품들이 들어 왔어요. 신중하게 선택할 거예요. 공연도 하고 싶고요. 곰이 해나라서 안타깝습니다."

/전효진기자 goni80@metroseoul.co.kr
사진/라운드테이블 디자인/이은지

star bag

"전 여친과 결혼설 사실무근"

배우 김현중 측이 전 여자친구 최 모씨와의 결혼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김현중과 최 씨는 지난해 9월 합의 이후 헤어졌다. 최 씨는 지난달 초 김현중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다. 김현중은 최 씨의 임신이 사실일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신해철법' 제정 서명운동

고(故) 신해철 팬클럽 철기군이 28일 [illegible]산에서 열리는 '2015 넥스트 유나이티드 콘서트' 현장에서 '신해철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재개할 예정이다. 신해철법은 의료 사고 발생 시 해당 기관의 동의와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첫 팝클래식 앨범 발매

가수 선우가 첫 번째 팝클래식 앨범 '마이 클래식스'를 23일 발표했다. 타이틀곡 '브로큰 바우'는 유럽에서 인기를 얻은 라라 파비안의 동명 원곡을 리메이크한 것이다. 영화 '디 테너 리리코 스핀토' 실제 주인공 배재철 교수에게 6개월 동안 성악 발성과 호흡을 익혔다.

첫 에세이집 '가구 만드는 ' 출간

배우 이천희가 첫 에세이집 '가구 만드는 남자'를 다음달 3일 출간한다. 이천희는 가구 브랜드 '하이브로우'를 운영 중이다. 이번 에세이를 통해 가구는 물론 캠핑, 서핑 등 취미 생활과 배우로서의 삶,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이다.

제87회 아카데미 시상식

'버드맨' 4관왕 날았다

영화 '버드맨'이 올해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 등을 차지하며 4관왕에 올랐다.

멕시코 출신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감독의 '버드맨'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87회 아카데미 영화상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 촬영상을 받았다.

슈퍼 히어로 '버드맨'으로 톱스타의 인기를 누렸던 할리우드 배우 리건 톰슨(마이클 키튼)이 꿈과 명성을 되찾고자 브로드웨이 무대에 도전하는 내용을 담았다.

'버드맨'과 경합을 벌였던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보이후드'는 여우조연상(패트리샤 아퀘트) 수상에 그쳤다. 웨스 앤더슨 감독의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은 미술상과 의상상, 분장상, 음악상 등 4개 부문을 휩쓸었다.

남녀주연상은 에디 레드메인(사랑에 대한 모든 것)과 줄리안 무어(스틸 앨리스)에게 돌아갔다. 에디 레드메인은 루게릭병에 걸린 스티븐 호킹 박사 역을, 줄리안 무어는 알츠하이머에 걸린 여교수 역을 각각 맡아 열연했다.

국내에서 1000만 관객을 동원하며 인기를 끈 '인터스텔라'는 시각효과상을 받는데 만족해야 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빅 히어로'는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받았다.

/이민정기자

제8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을 차지한 영화 '버드맨'의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감독이 주연 여배우 엠마 스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젊은 감각의 영화가 '주렁주렁'

'소셜포비아' '위플래쉬' 등 30대 감독 연출작 대거 개봉

젊은 감각으로 똘똘 뭉친 영화들이 다가오는 봄 극장가를 찾는다. 30대 감독들이 담아낸 청춘의 이야기가 스크린을 한층 신선하게 만들 전망이다.

다음달 12일 개봉하는 홍석재 감독의 '소셜포비아'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현대인의 삶에서 떼놓을 수 없게 된 SNS를 소재로 한 영화다. 한국영화아카데미 장편제작 연구과정 작품으로 지난해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 감독조합상과 넷팩상(아시아영화진흥기구상), 제40회 서울독립영화제 관객상과 배우상을 수상했다.

영화는 SNS에서 벌어진 마녀사냥으로 인한 한 사람의 죽음을 놓고 자살인지 타살인지 파헤쳐가는 내용을 담았다. 제목은 인터넷 중독에 따른 사회 부적응과 비정상적인 공포증을 뜻한다. 드라마 '미생'으로 기대주로 떠오른 변요한, 독립영화에서 주목 받은 이주승 등 젊은 배우들이 함께 했다.

스무 살 청춘들의 이야기를 그린 '스물'도 다음달 개봉한다. 독립영화 '힘내세요, 병헌씨'로 주목 받은 이병헌 감독의 첫 상업영화다. 김우빈, 이준호, 강하늘 등 20대 대표 남자 배우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영화는 인기만 많은 치호(김우빈), 생활력만 강한 동우(이준호), 공부만 잘하는 경재(강하늘) 등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순간을 함께한 스무 살 동갑내기 친구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세 배우의 연기 변신이 관전 포인트다. 이병헌 감독은 "어설픈 성인으로 첫 발을 내딛는 나이인 스무 살을 소재로 그들이 겪는 선택과 시행착오를 유쾌하게 끌어보고 싶었다"고 밝혔다.

신인 한준희 감독의 첫 장편영화 '차이나타운'은 오는 4월 개봉한다. [illegible] 지하철 보관함에 버려진 일영(김고은)이 차이나타운의 실질적 지배자이자 '엄마'라 불리는 보스(김혜수)에 의해 범죄조직 일원으로 성장하며 겪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충무로 대표 여배우 김혜수와 김고은의 만남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음달 12일 개봉하는 '위플래쉬'는 미국에서 주목 받은 1985년생 다미엔 차젤레 감독의 작품이다. 천재 드러머를 갈망하는 학생과 그의 광기가 폭발할 때까지 몰아치는 폭군 선생의 대결을 그렸다. 선댄스영화제, 도빌영화제, [illegible]국제영화제 등 유수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차지했다.

/[illegible]기자

유호정 "벌써 시어머니 됐어요"

SBS 새 월화극 '풍문으로 들었소' 출연 – 상류층 속물 의식 풍자

배우 유호정(46)이 시어머니가 됐다.

유호정은 SBS 새 월화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에서 최연희 역을 맡았다. 최연희는 법조계의 갑 한정호(유준상)의 아내이자 착한 고등학생 한인상(이준)의 엄마다. 항상 웃고 상냥해서 미소 가면으로 불리는 그는 상류층 여인들의 선망과 질투를 동시에 받는다. 그러나 혼전 임신한 며느리 서봄(고아성)을 만나면서 이중성을 드러낸다.

23일 서울 양천구 목동 SBS에서 열린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유호정은 "큰 아들이 13세라 아직 시어머니가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 고아성의 엄마가 나와 동갑이더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의 여자친구가) 만삭으로 나타난다면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혼전 임신은 해선 안 되는 일이지만 대처법을 생각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연기하면서 나 또한 최연희가 서봄을 어떻게 대할지 궁금하다"고 작품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풍문으로 들었소'는 부와 권력 세습을 꿈꾸는 상류층의 속물 의식을 풍자한 블랙코미디 드라마다. '밀회' 명품 콤비 정성주 작가·안판석 감독이 함께 한 작품이다. '펀치' 후속 작으로 23일 오후 9시50분 첫 방송된다.

/권효진기자

사진/손진영 기자 son@

'일곱빛깔' 레인보우 완전체 컴백

미니 3집 '이노센트' 발표 – 매혹적 매력 콘셉트

7인조 걸그룹 레인보우가 1년 7개월 만에 컴백한다.

레인보우는 세 번째 미니앨범 '이노센트'의 신곡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23일 정오 공개했다.

레인보우는 지난해 유닛과 개인 활동으로 바쁜 시간을 보냈다. 멤버 김재경·고우리·오승아·조현영은 유닛 '레인보우 블랙'으로 활동했으며 다른 멤버들은 예능 프로그램, 드라마 등 개인 활동에 집중했다.

오랜만에 뭉친 레인보우는 이번 활동을 통해 꼭 가요계를 평정하겠다는 각오다. 앞서 보여준 건강한 매력과 달리 고급스럽고 매혹적인 모습을 뽐낼 계획이다.

타이틀곡 '블랙스완'을 비롯해 '미스터리(Mr Lee)' '나쁜 남자가 온다' '조금더' '삐에로(Pierrot)' '프라이버시(Privacy)' 등이 수록돼 있다.

'블랙스완' 뮤직비디오는 몽환적이면서 신비한 세트를 배경으로 레인보우의 강렬한 안무가 돋보이도록 쟈니브로스의 홍원기 감독이 연출했다.

앨범 재킷 사진은 유명 패션 사진작가 데이비드 번이 맡았다. 소속사는 "그는 열정적으로 촬영 현장을 진두지휘하여 레인보우의 매력을 극대화해 명품 앨범 재킷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레인보우는 오는 26일 엠넷 '엠카운트다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김지민기자

유럽축구 신예들 '광풍'

해리 케인 4경기 연속골 – 도스트 5경기 9골

유럽 프로축구에서 신예들이 최근 무서운 기세로 득점 행진을 벌여 눈길을 끌고 있다.

올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해리 케인(22·토트넘 홋스퍼)과 독일 분데스리가의 바스 도스트(26·볼프스부르크)가 그 주인공이다.

해리 케인은 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화이트하트레인에서 열린 2014~2015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 극적인 동점골을 터트리며 2-2 무승부를 이끌었다. 1-2로 뒤진 후반 51분 자신이 얻어낸 페널티킥 키커로 나서 골키퍼에게 막혔지만 흘러나오는 공을 재차 슈팅해 골망을 갈랐다.

4경기 연속골이자 최근 10경기에서 기록한 11번째 골이다. 이름을 본따 지은 별명 '허리케인'에 어울리는 득점력이다.

토트넘 유소년 출신인 그는 그동안 하부 리그 팀에서 임대 생활을 전전하다가 이번 시즌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토트넘 감독의 선택을 받아 승승장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트리폴리스(그리스)전에서 해트트릭을 작성했고, EPL 애스턴 빌라전에서 정규리그 시즌 첫 골을 터뜨린 이후 지금까지 14골을 뽑아냈다. 시즌 통틀어서는 24골이다.

EPL 득점선두를 달리고 있는 세르히오 아궤로(맨체스터 시티)와 디에고 코스타(첼시)와는 불과 3골 차로 최근 득점력을 고려하면 이번 시즌 득점왕도 노려볼 만하다.

바스 도스트 역시 이날 분데스리가 헤르타 베를린과의 홈경기에서 홀로 2골을 몰아치며 팀의 2-1 승리를 이끌었다. 손흥민(레버쿠젠)이 해트트릭을 기록한 지난 15일 경기에서는 혼자 4골을 올려 팀의 5-4 승리를 주도하기도 했다.

최근 5경기에서 9골을 몰아친 그는 단숨에 득점 랭킹 3위(11골)로 올라섰다. 선두 아리언 로번(뮌헨)과 아직 5골 차지만 현재 득점력이면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는 평가다.

/유선준기자

호날두 4경기만에 득점포

시즌 29골… 메시와 3골차

골잡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사진)가 4경기 만에 득점포를 가동했다.

호날두는 23일(한국시간) 스페인 엘체의 마르티네스 발레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4~2015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24라운드 엘체와의 원정경기에서 후반 24분 이스코가 왼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강력한 헤딩 슈팅으로 연결해 골망을 갈랐다.

후반 11분 카림 벤제마의 선제 결승골을 더해 2-0으로 승리한 레알 마드리드는 프리메라리가 20개 팀 가운데 가장 먼저 20승(4패·승점 60) 고지를 넘으며 바르셀로나(승점 56)와의 승점 차를 4로 벌리고 1위 자리를 확고히 했다.

호날두 역시 정규리그 29호골로 득점 2위인 '라이벌'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26골)와의 격차를 3골로 벌렸다.

/유선준기자

64전65기… 제임스 한 PGA 첫승

재미동포 제임스 한(34)이 연장전 끝에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제임스 한은 2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퍼시픽 팰리세이즈의 리비에라 컨트리클럽(파71·7349야드)에서 열린 노던트러스트 오픈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2타를 줄여 합계 6언더파 278타로 연장전에 들어갔다.

폴 케이시(잉글랜드), 더스틴 존슨(미국)과 붙인 연장전에서 그는 3차까지 가는 접전 끝에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렸다.

버클리대학을 나와 2003년 프로에 데뷔한 제임스 한은 10년 넘게 2부 투어와 정규 투어를 전전했다. PGA 투어에서 거둔 최고 성적은 2013년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로암 대회에서 3위에 오른 것이다.

투어에 나설 비용이 없어 광고회사, 신발가게, 골프용품 매장 등에서 일하며 돈을 모은 그는 2007년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에서 활동하다가 2008~2009년 캐나다 투어로 무대를 옮겼다.

이어 2009년 퀄리파잉스쿨을 통과해 미국 PGA 2부 투어인 네이션와이드 투어 출전권을 따냈고, 이날 65번째 PGA 투어 무대에서 첫 승리를 거두고 우승 상금 120만6000달러(약 13억4000만원)를 받았다.

우승 후 그는 "아내가 일주일 뒤 출산을 한다"며 "예비 아빠로 이번 우승이 정말 감격스럽다"고 뿌듯해 했다.

◆ 배상문 2타 차 공동 8위

한편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상황에서 PGA 투어를 강행하고 있는 배상문(29)은 4라운드에서 전반에 버디 2개를 잡고 선두 추격에 나섰지만 후반에 3타를 잃고 공동 8위(4언더파)로 대회를 마감했다.

노승열(24·나이키골프)은 공동 22위(이븐파), 최경주(45·SK텔레콤)는 공동 30위(1오버파)에 올랐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23일(현지시간) 끝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노던트러스트 오픈에서 우승한 제임스 한이 우승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3차 연장 끝 우승
일주일 뒤 아빠
정말 감격스럽다**

한화 김민우 '괴물신인' 탄생 예고

스프링캠프 기량 급성장 "두둑한 배짱 최고"

혹독한 스프링캠프를 통해 올 시즌 도약을 꿈꾸는 한화 이글스가 신인 투수 김민우(20·사진)를 주목하고 있다.

김성근 감독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일본 고치 스프링캠프에 합류한 김민우는 실전훈련에서 팀 내 가장 많은 이닝을 던지며 집중 테스트를 받고 있다.

자체 홍백전과 대외경기 포함 7차례 연습경기에 등판해 16이닝을 소화하며 6실점(5자책)을 기록했다. 평균자책점 2.81로 16이닝을 던지는 동안 13개의 삼진을 잡으며 볼넷을 4개밖에 허용하지 않았다.

지난 22일 KIA와의 연습경기에서는 6회 구원등판해 2이닝 동안 안타 1개를 맞았을 뿐 탈삼진 2개를 포함해 무실점 역투를 펼쳤다. 직구 최고 구속은 141km였지만 공이 묵직했고, 낙차 큰 커브까지 가미해 타자들의 타이밍을 빼앗았다.

계형철 코치는 "현재 우리 팀에서 가장 좋은 공을 던지고 있다"며 "폼을 교정하고 있는데 많이 부드러워졌다. 공 자체가 무겁고 배짱도 좋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김성근 감독 역시 "변화구를 조금 더 다듬어야 하지만 스트라이크를 잡아 넣는 능력이 좋다"고 칭찬했다.

한화가 괴물 류현진 이후 또 한명의 괴물 신인투수를 탄생시킬지 기대된다.

/김민준기자

전국 첫 나무시장 개장 23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산림조합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임업인에서 '2015년 나무 전시판매장'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나무시장은 4월 11일까지 이어진다. /연합뉴스

'스피드 재판' 받는 소년범

서울중앙지법 개선안 발표… 미성년 심리적 불안감 줄이기 차원

앞으로 형사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미성년 피고인은 종전보다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은 소년형사사건 심리방식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소년 형사사건은 사건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최우선으로 공판기일을 잡고 신속한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별도의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심리가 종결된 날 선고까지 마치기로 했다.

미성년자가 형사 절차를 통해 겪는 심리적 불안감이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학 중인 소년범은 학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방과 후 재판기일을 잡고 법정에 보호자가 있으면 진솔한 진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비공개 신문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서울가정법원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 소년부 송치결정이 난 사건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미성년 피고인 가운데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일반 형사재판부가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심리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법원에 접수된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하는 경우 사건 이송 과정 등에서 절차가 다소 지연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충실한 심리가 될 수 있도록 본인은 물론 보호자에게도 공판기일을 알려줘 재판에서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물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사회복지학자 등 전문 심리위원과 전담 양형 조사관을 재판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받으세요

다음달 2일부터 주민센터·인터넷 접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그리고 법정 차상위 계층이다. 또 시도교육청의 지원 항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월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의 120~150%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급식비(연 63만원)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교육정보화 비용(연 23만원) 등 연간 최대 146만원을 지원받는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학비(연 130만원)를 포함해 최대 276만원까지 제공된다. 게다가 일부 시도교육청은 교복과 체험학습비, 고교 교과서 비용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으로는 신청할 경우에는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이나 복지로를 이용하면 되는데 이때는 부모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단 과거에 교육비를 신청한 적이 있고 지난해 교육비를 지원받았으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교육부는 4월 초까지 교육비 심사를 마친 후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발견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

새내기들의 힘찬 출발! 23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여자대학교에서 2015학년도 입학식이 열렸다. 사진은 새내기들이 입학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해 5도 여객선 운임 50%↓

인천시가 다음 달부터 서해 5도 등 인천 주요 섬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여객선 운임의 절반을 지원한다.

시는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비, 군비 등 총 14억원을 확보했으며 서해 5도 등 주요 섬에서 1박 이상 체류하는 관광객에게 여객선 운임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운임 지원 대상 항로는 ▲연평도 ▲백령도 ▲대청·소청도 ▲덕적도 ▲자월도 등이며 1인당 연 3회까지 가능하다. 단 성수기인 7~8월에는 운임이 지원되지 않으며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지원도 종료된다.

수서역 일대 미래형 복합 도시 육성

서울시는 내년 초 수서발 KTX 개통을 앞두고 수서역 일대를 관리하기 위한 '수서·문정 지역 중심 육성 종합관리방안'을 수립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 지역을 연구, 연구 개발(R&D), 생산, 물류 기능이 융합된 미래형 복합 도시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지는 수서역사부지는 물론 역사 남측부지와 수서 차량기지까지를 포함하는 약 60만㎡ 규모다.

시는 수서역 일대 약 60만㎡ 부지를 비롯해 현재 개발 중인 문정지구, 동남권 유통단지, 가락시장 등 수서·문정 지역 일대 약 340만㎡를 종합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3월 중으로 수서·문정 지역 중심 육성 종합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고 종합관리방안을 구체화한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강남구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조현정기자

인사

■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전보 ▲ 무역협력관 윤갑석 ▲ 국립외교원 교육파견 조영신 ◇ 과장급 전보 ▲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 김민희 ▲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과장 박안수 ▲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장 이석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임 ▲ 상임이사 유석규

■ 한국예탁결제원

보임 ▲ 인도네시아 NFS 구축사업단 선임조사역(팀장) 이재철 ◇ 전보 ▲ 인도네시아 NFS 구축사업단 단장(부장) 장지훈 ▲ 인도네시아 NFS 구축사업단 선임조사역(팀장) 이종수

■ KGC인삼공사

승진 <상무→상무급> ▲ 제조사업단장 선지선 ▲ 원료사업단장 이재상 ▲ 중국사업실장 하철호 ▲ 브랜드실장 이종범 ▲ 유통관리실장 이종천 ▲ 인삼제품연구소장 박재규 ▲ 원주공장장 박찬정 ◇ 전보 <부사장> ▲ 국내사업본부장 박정욱 ▲ 글로벌본부장 송덕호 <전무> ▲ 전략본부장 이순형 <상무·상무급> ▲ 수도권사업본부장 원성희 ▲ 마케팅실장 박정환 ▲ R&D기획실장 정욱영 ▲ 전략실장 박인수 ▲ 경영지원실장 김동수 ▲ 윤리경영실장 서정결 ▲ 해외사업실장 윤형수 ▲ 영업실장 이석권 ▲ 원료사업실장 문호은 ▲ 글로벌제품연구소장 김나미 ▲ SCM실장 전상식 ▲ 재무실장 김세수 <부장급> ▲ 녹용사업팀장 이승용 ▲ 마케팅기획부장 임민 ▲ 마케팅Comm.부장 서분근 ▲ 고객관계부장 이보형 ▲ 브랜드1부장 황정선 ▲ 브랜드2부장 김승여 ▲ 브랜드혁신부장 황금용 ▲ 디자인부장 박문경 ▲ 영업기획부장 김선애 ▲ 기행사업부장 안경성 ▲ 신유통영업부장 이은복 ▲ 특판영업부장 이승민 ▲ 지원담당 이혈용 ▲ 공정부장 김이곤 ▲ 유통2부장 유병석 ▲ 원료기획부장 노현우 ▲ 생약사업부장 이생철 ▲ SCM부장 윤경기 ▲ 구계단장 권순식 ▲ 해외전략부장 신형수 ▲ 해외관리부장 이환용 ▲ 해외영업1담당 기한조 ▲ 해외경영혁신팀장 김용진 ▲ 해외제품기획부장 김준호 ▲ RnD기획팀장 이재원 ▲ 진흥경쟁제팀장 박철수 ▲ 자원연관팀장 이용재 ▲ 홍삼제품팀장 서정호 ▲ 홍삼유료팀장 이후상 ▲ 제품개발팀장 추순기 ▲ 동물건식TF팀장 송유범 ▲ 표준소재팀장 민교 ▲ 표준공정팀장 안희준 ▲ 표준관리팀장 서경민 ▲ 효능임상연구팀장 김영숙 ▲ 전략부장 이규범 ▲ 미래기획부장 신주형 ▲ 법무혁신부장 김상혁 ▲ CA부장 김호용 ▲ 법무부장 김정관 ▲ 홍보1부장 김경권 ▲ 홍보2부장 김효규 ▲ 인사총무부장 전장수 ▲ 노경지원부장 한수주 ▲ IT부장 염준호 ▲ 스포츠운영부장 백승철 ▲ 유로마케팅부장 김형숙 ▲ 유로변동영업부장 이정훈 ▲ 유로등통영업부장 최영학 ▲ QA팀장 최경기 ▲ 자무부장 주계춘 ▲ 홍삼부장 조찬기 ▲ 제품1부장 김선호 ▲ 제품2부장 김종근 ▲ 생산부장 오경력 ▲ 건설사업파트 이환종 ▲ 영업1부장 김민기 ▲ 영업2부장 이재근 ▲ 영업3부장 유창호 ▲ 영업지원부장 김준호 ▲ 부산/경남지사장 김영재 ▲ 대구/경북지사장 백건호 ▲ 광주/전남지사장 강하종 ▲ 대전/충남지사장 정태원 ▲ FM지사장 이홍근 ▲ 울산지사장 김달진 ▲ 강원지점장 정경모 ▲ 전북지점장 박순영 ▲ 충북지점장 전용식 ▲ 제주지점장 서준기 ▲ 북부사업소장 박종곤 ▲ 동부사업소장 심유완 ▲ 남부사업소장 이종혁 ▲ 운영담당 서성은

부고

▲ 김병기씨 별세, 김민수(한국예탁결제원 비서실장)씨 장인상 = 22일 오전, 서울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24일 오전 8시, 02-2258-5940

▲ 김형국씨 별세, 김정수(한국금융투자협회 K-OTC부 부장)씨 부친상 = 22일 오후, 전남 광주보훈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5일 오전 9시(대전 현충원), 062-602-6344

▲ 조상도(KHCI 회장)씨 별세, 조인숙(전 이화여대 법학대학장) 남편상, 조관식·조석(굴레단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수진(한림대의과대학 교수)씨 부친상, 김종욱 대화감정평가법인 감사씨 빙부상 = 20일 오후 10시 45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 발인 24일 오전 7시, 장지 용인공원묘원, 02-3010-2263

▲ 최열씨 별세, 최영준(정선군 부장)·경철(동아일보 기자)·은실(주부)씨 부친상 = 23일, 대구시 수성구 황금2동 507-1 수성요양병원 장례식장, 발인 25일, 장지 대구시 동구 지묘동 선영, 053-784-2000, 053-766-4444

확산되는 구제역 공포

정부, 방역 강화 불구 실효성 의문 지적 잇따라

지난해 12월 시작된 구제역 공포가 잦아들기는 커녕 더욱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속적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 방역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 현황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2월 3일부터 현재까지 전국에서 총 104건의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22일을 기준으로 모두 9만3874마리가 살처분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23일 전국 주요 도로와 가축 사육농장, 철새 도래지 등에서 일제 소독을 진행했다. 아울러 설 명절 때 귀경기를 맞아 돼지와 소, 닭과 오리 등 살처분된 가축을 매립한 매몰지 612곳 가운데 27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문제는 이런 방역당국의 노력에도 구제역이 더욱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신고가 접수되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동시에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고 주변 방역을 강화한다. 게다가 해당 농가와 역학 관계에 있거나 계열 농장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곳까지 철저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하지만 이런 당국의 신속한 대응도 구제역을 막지 못하고 있다. 설 연휴 동안 경기도 평택과 충북 충주, 충남 홍성 등에서 구제역이 추가 확진됐으며 22일에는 비교적 구제역 안전지대로 꼽혀온 강원도에서도 구제역 의심 신고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구제역 확산에 대한 정확한 판단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구제역 확산 루트를 확인해 방역을 강화하는 선조치가 미흡하여 어느 정도 재정이 소요될지도 아직 추산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농민들의 불만도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다.

충남 아산에서 소를 기르는 이모(63)씨는 "돼지의 출하 싸이클이 4개월인데 구제역이 한 번 발생하면 발이 묶이고 출하이 동제되며 매매가 어려워져 가격이 하락한다. 농가에서는 올며 겨자먹기로 정부의 시책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피해보상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강원 원주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는 전모(59)씨는 "구제역이 발생하면 모든 피해를 농민이 뒤집어쓴다. 게다가 농민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구제역이라도 지연적으로 낫는 경우도 있어 구제역 의심 증상이 나와도 모르는 척 넘기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전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태극기 바람개비 3·1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청 직원들이 23일 구청 잔디광장에 태극기가 새겨진 바람개비를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취 무단횡단 교통사고 땐 보행자 책임 커"

만취한 보행자가 정지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였다면 운전자보다 더 큰 과실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25·여)는 2011년 4월 오후 11시 30분께 경기도 한 도시의 편도 2차로를 가로지르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B씨가 운전하는 SUV 차량에 치였다.

사고 당시 술에 만취한 A씨는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이 었는데도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고, 나중에 의식을 되찾은 뒤에도 사고 순간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왼쪽 턱뼈 일부와 치아 한 개가 부러졌고 이마와 콧등, 턱 끝이 부분적으로 함몰돼 1~3㎝ 가량의 흉터가 여러 군데 남았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이 사고에서 정지 신호에 길을 건넌 보행자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운전자의 과실이 각각 절반씩이라고 봤다. A씨가 입은 경제적 손해의 절반에 위자료 800만원을 더해 4300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보행자인 A씨의 과실이 운전자 과실보다 더 크다고 봤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합의17부는 B씨의 책임을 40%로 보고 위자료를 500만원으로 낮춰 배상액을 317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있지만 원고에게도 술에 만취해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심야의 어두운 횡단보도를 보행자 정지 신호에 건너다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현정기자

천안서 일가족 흉기에 찔린 채 발견 23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같은 아파트 주민 고모(30)씨를 붙잡았다. /연합뉴스

법원 "통상임금 소송 독려 노조원 징계 부당"

한국타이어 중노위 상대 소송 패소

통상임금 소송 참여를 독려했다며 노동조합원을 징계 조치한 한국타이어의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한국타이어가 "조합원 11명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 근로자들은 대법원이 2012년 3월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하자 이듬해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원 11명은 2013년 7월 공장과 연구소에서 통상임금 소송 집단 참여 독려 유인물을 배포했다.

유인물에는 회사 측이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노조원을 압박하고 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국타이어는 통상임금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사실로 사원을 선동하고 있다며 2013년 8월 김씨 등 노조원 11명에 대해 견책과 경고 등 징계 처분했다.

김씨 등은 이에 반발,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냈고 중노위가 이들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결정하자 사측은 소송으로 맞섰다. 한국타이어는 유인물 배포 행위는 개별 근로자에 의한 독자적 행위일 뿐 정당한 조합 활동이 아니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유인물 내용은 소송에 참여할 근로자를 모집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 조건의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노조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며 "배포 행위가 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 행위인 이상 이를 중단하라는 상사의 지시에 불응한 것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현정기자

출근길 황사마스크 준비하세요

23일 한반도는 중국에서 날아온 흙먼지로 뿌옇게 뒤덮였다.

기상청은 23일 오후 4시를 기해 서울·경기·인천에 내려졌던 황사경보를 주의보로 대치한다고 밝혔다. 또 오후 2시 현재 부산과 울산, 경남 양산·김해 등을 제외한 전국에 황사주의보가 내려졌다.

특히 이번 겨울 황사는 2009년 12월 25일 이후 가장 높은 미세먼지 농도를 기록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자료로 축적된 2002년 이후 4번째로 높은 수치이며 서울에 황사경보가 내려진 것도 이번이 6번째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황사는 몽골 고비사막과 중국 내몽골 고원, 북동부 지역 등의 최근 한주일간 강수량이 1㎜에 그치는 등 발원지에 먼지가 일어난 상태에서 상층에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먼지가 이동해 발생됐다. 가벼워진 공기가 발원지의 흙먼지를 지상 2.5㎞ 이상의 높이로 띄웠고 강한 북서풍이 이들 우리나라 상공까지 끌고 온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주변에 정체된 고기압으로 하강기류가 생기면서 먼지가 낙하해 강하고 오래가는 황사가 만들어졌다.

아울러 올해는 시작이 이르긴 했지만 황사 발생일 수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발원지에서의 눈덮임이 평년보다 적고 고온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주변으로 남동~남서류가 주로 나타나 황사가 유입되기 어려운 기류조건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황사는 이날 늦은 오후부터 점차 약화될 것으로 보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24일까지 옅은 황사가 나타난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황재용기자

겨울을 녹이는
한잔의
부드러움
처음처럼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